

제주도 여성속담의 이중성

김 미 진*

차 례

- I. 시작하며
- II. 제주도 여성속담의 이중성
 - 1. 외모지상주의 부정
 - 2. 여아선호사상
 - 3. 강인한 제주여성
 - 4. 제주여성의 근면성
- III. 마치며

I. 시작하며

속담은 민족성과 향토성을 반영한다. 제주도의 속담은 고립과 빈민의 열악한 환경을 극복해 온 제주도민의 삶이 담겨져 있는 민속어이자 생활의 교훈이다. 제주도 속담에 제주도 사람들의 생활이 반영되어 있다면 제주도의 여성속담에는 제주도 여성상이 반영되어 있겠기에 속담을 통해 제주 여성의 삶을 살펴보는 것이 가능하다.

제주도는 유달리 남성보다 여성이 많았다. 출생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 제주대학교 강사

역사의 수난에 의한 남자 수의 감퇴에서 비롯된 현상이었다. 조선시대에는 조공선이나 고기잡이 배를 탄 남성들이 생명을 잃기도 하여 여성이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일제시대에 남성들의 일본 노동시장으로의 진출과 전쟁시의 강제징용으로 인해 이 현상이 더욱 심해졌다. 해방 후 상당수의 일본에 거주했던 남성들이 돌아왔으나 1948년부터 시작된 4·3사건과 6·25 전쟁으로 인해 남성 수가 더욱 감소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여성들은 불우한 환경 여건에 도전하여 온갖 고난을 극복하고 호구지책으로 밭농사는 물론 바다에 몸을 던져 해산물을 채취하여 남자보다 더 많은 일을 해냈다. 가정생활에 있어서도 그 역할과 비중이 커져 가정을 좌우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

여성 속담이란 여성을 소재로 하거나 여성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속담을 말한다. 우리 속담에서는 여성에 관련된 속담의 수가 남성관련 속담에 비해 훨씬 많다. 『여성속담사전』에서 송재선은 총 속담 수집량 55,000여 구 가운데 여성 속담은 91%에 해당하는 50,000여 구에 이르나, 남성 속담은 여성 속담의 약 20%에 불과하여 남존 여비가 엄연히 존재하던 시대에 어떻게 여성속담이 그렇게 압도적으로 많은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속담의 기능은 어떤 대상이나 행위에 대한 금지, 경계, 교훈에 있으므로, 여성 속담이 많다는 것은 곧 여성과 관련된 경계나 교훈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적, 사회적 구조의 차이에 의한 차별화된 여성 언어의 문제를 속담을 통해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주로 여성속담은 일반적인 진리라기보다 여성의 교화 내지는 비하를 위해 사용되었다고 하겠다. 즉 전통적인 남성중심 사회에서 여성에게 제약을 줌으로써 남성이 주가 되고 여성이 종인 되는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방편으로 속담이 필요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주도 여성속담은 육지부 여성속담과 다르게 제주여성의 강인함과 근면성을 부각시킨 속담이 있어 눈길을 끈다. 제주도의 여성속담에는 우리나라

1) 김종택, 「한국인의 전통적인 여성관-속언·속담을 중심으로」, 『여성문제연구 7』, 효성가톨릭대 사회과학연구소, 1978, p.201.

라 속담의 일반적인 특성인 여성비하적 성격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여성의 근면함과 강인함이 드러나는 것은 제주도 속담만의 특색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제주여성의 자존²⁾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자존을 내용으로 한 속담은 본도 여성 속담의 22.96%인 14편으로서 한국 여성속담이 과연 여자 무시만이 주종일 수 있느냐에 제동을 걸고 있다. 본도 여성속담에는 남자를 앞지르는 근실성과 끈기와 인내가 있고, 억척같이 살아가는 강인성은 본도 개척의 무기였다. 또한 가정에서는 가운을 좌우하는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주역임을 역력히 드러내고 있다.

이렇듯 속담을 통해 본 본도 여성상은 불우한 환경여건에 도전하여 의타적이거나 나약한 자태로는 생계해결의 급무를 감당해 나갈 수 없음을 행동으로 보여줬다. 항상 근실과 강인을 무기로 삼고 묵묵히 수분을 지키며 억척같이 해륙을 누볐다. 그 때의 그 호홉과 육성의 응어리가 바로 본도 여성속담의 진수로서 빛을 뿜었던 것이다.³⁾

이처럼 제주여성의 강인함을 나타내는 속담들은 육지부 속담과 다른 제주속담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주여성이 특별히 강인했거나 제주가 남녀 평등 혹은 여성 상위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속담이 등장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앞에서 언급한 속담의 기능처럼 남성 중심의 사회를 더욱 공고히 하고 여성을 교화하기 위하여 속담이 사용되었다면 제주도에서 나타나는 여성의 강인함이나 근면성을 다룬 여성 속담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하는 의문에서 이 논문은 출발한다.

논의에 앞서 제주도 속담과 제주도 여성 속담의 범위를 규정해야 할 것 같다. 제주도 속담이라는 것은 예로부터 제주도에서 전승되어온 속담을 일컫는다. 그런데 한국 속담대사전에 등록이 되어있는 속담의 경우 제주도만의 속담으로 보아야 하는지 일반적인 우리나라 속담으로 보아야 하는지의

2) 고재환, 「제주도의 여성속담」, 『국어국문학』86, 국어국문학회, 1981, p.271.

자존이라 함은 여자의 귀중성과 좋은 점을 두루 포괄할 수 있는 용어이다.

3) 고재환, 앞의 논문, p.275.

경계의 모호함이 있다. 여기서는 고재환의 『제주도 속담사전』에 나와있는 속담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제주도 여성 속담은 고재환의 「제주도의 여성속담」에서 예로 든 여성속담을 중심으로 『제주도 속담사전』에서 여자, 어머니, 비바리, 딸, 며느리, 각시, 할머니, 잠녀 등과 관련된 속담 및 문순덕의 『제주여성 속담으로 바라본 통과의례』에 나온 속담 중에서 여성 비하와 존중의 의미를 드러내는 제주도 여성속담을 선별, 총 60편을 대상으로 하였다.

II. 제주도 여성 속담의 이중성

1. 외모 지상주의 부정

고대부터 지금까지 외모는 여성에게 중요한 가치로 인정받는다. 여성의 외모가 출중하면 윤택한 인생이 보장된 것처럼 인식되어왔다. 아름다운 여성은 사회가 인정하는 남편에게 선택받은 신데렐라이다. 멋진 남성이라야만 자신이 원하는 여성과 결혼할 수 있다는 관점은 없다.⁴⁾

제주도는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고된 생활과 힘든 노동으로 삶을 이어갔으므로 여성의 외모보다는 능력과 근면함을 추구했다고 볼 수 있다. 여성의 외모는 필요 없다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제주에서 생활하려면 외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 같다.

- (1) 고운년 잡아들이렌 호난 술친년 잡아 들인다.
(고운 여자 잡아 들이라하니 살찐 여자 잡아들인다.)
- (2) 솔토메기 치레헌 년 썸 었나.(살찐 여자는 썸이 없다.)
- (3) 고운 사람은 개똥 밧뒤 앓아도 곱나.(고운 사람은 개똥밭에 앓아도 곱다.)
- (4) 그슬 하늘광 지세어명은 검어도 좋나.(가을하늘과 본부인은 검어도 좋다.)

4) 문순덕, 『제주여성 속담으로 바라본 통과의례』,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4. p.150.

(1)은 정말 살찐 여자를 아름답다고 여겼다가보다는 힘든 생활고로 살찐 여성을 흔히 볼 수 없는 환경에서 살이 어느 정도 찌야 보기 좋다는 표현인 듯하다. (1)과 반대로 (2)는 살찐 여자를 비난하는 말로 ‘뺨’은 잔정, 다정다감함을 뜻하는데 살이 찌면 행동만 둔한 것이 아니라 마음도 인색하다는 비난이다. 살이 찌도록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여성을 비유한 속담이다. 치장이 사람의 외모를 결정하지는 않으며 본부인은 얼굴이 검거나 못생겨도 괜찮다고 하고 있다. 여성의 외모가 고와야 한다거나 여성은 날씬해야 한다거나 하는 여자의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이 드러나기 보다는 제주도 나름대로의 여성관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5) 얼굴 곤거 속 곳나.(얼굴 고운 사람 마음 속은 나쁘다.)

(6) 얼굴 곤거 징이지 말라.(얼굴 고운 사람 탐내지 말라.)

이 속담은 외모와 마음씨는 비례하지 않다는 말이기도 하고 사람을 볼 때 외모에만 비중을 두어서 판단하지 말라는 경고로 들리기도 한다. 그렇다고 제주에서는 여성의 외모지상주의를 비판하고 얼굴이 예쁜 여자 보다는 마음이 예쁜 여자를 선호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살찐 여자가 예쁘다거나 예쁜 사람은 마음이 나쁘다든가하는 구체적인 속담은 제주에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것이다.

이는 척박한 생활을 이겨나가기 위하여서는 예쁜 여성보다는 일 잘하고 억척스런 여성이 필요했기에 이런 속담들이 등장한 것일 것이다. 이를 반증하듯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되어있는 여성 비하속담들이 제주도에서도 많이 등장한다. 여성을 동물보다 못한 존재로 인식한다거나 음식에 비유하여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성적인 표현을 한다거나 하는 속담들이 많이 보인다.

1) 여성비하

흔히 여자를 ‘꽃’으로 비유할 때, 아름다움의 대상으로서 보기 보다는 꺾

어서 가질 수 있는 소유의 대상이라는 점이 강조된다. 또 스스로 활동을 할 수 없는 비주체적인 존재임을 암시한다. 여성을 꽃으로 보는 경우에 남자를 또 다른 꽃으로 보는 경우는 없고 그 꽃을 찾는 벌이나 나비로 나타내고 있으므로, 결국 수동적인 역할과 능동적인 역할로 남녀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도 속담에서 여성을 꽃에 비유한 것은 보이지 않지만 이와 유사하게 여성을 비하하거나 비주체적임을 강조한 속담이 보인다. 이는 속담이 남성 중심 봉건사회에서 발생하고 그 사회의 지속을 위한 필요에 의해 생성되고 유지되어온 것임을 생각할 때 당연한 결과이다.

- (1) 지냉이광 버랭이 나당 버쳐사 여즈로 난다.
(지네와 벌레로 낳다 부쳐야 여자로 낳는다.)
- (2) 예펜 글호영 도원수 받아온 디 었나.
(여자 공부해서 도원수 받아온 데 없다.)
- (3) 미운놈 보컨 딸 하영 나라.
(미운 놈 보려면 딸 많이 낳아라.)
- (4) 곤 뿔 신 집 감낭엔 목 드는 놈 한다.
(예쁜 딸 있는 집 감나무엔 목 매는 놈 많다.)

(1)은 사람들이 꺼리는 지네나 벌레를 낳다가 마지못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여자라고 말하고 있다. 벌레만도 못한 굴욕적인 경멸의 대상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사는 비애를 토로하는 말이다. (2)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남성에게만 있다는 특권의식이 여실히 드러난다. 여성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한다고 해도 별 볼일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제주에서 1930~40년대까지 출생한 여성의 교육 수준은 무학이거나 국졸이 보통이었다. 남아 중심 사상으로 아들이 딸보다 더 많은 교육을 받게 된다. 이러한 교육에서의 남아 우선 현상은 이후 점차 개선되어 교육의 기회에 있어서 남녀가 동등해지긴 했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내면의식 속에 늘 내재되어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3),(4)는 여자가 있는 곳에는 남자가 기웃거리기 마련으로 딸을 많이 두

면 그 딸과 관련된 이런저런 남자들을 대할 수밖에 없다는 딸 많은 고충을 일컬을 때 쓴다.

제주도 속담에서 남녀의 차별적 모습의 단면을 보여주는 속담은 그 외에도 많다.

2) 성적 대상으로서의 여성

여자는 심심할 때 집어먹을 수 있는 굳것질의 대상이며, 비주체적이라는 뜻으로 비유된다. 특히 여성의 정조를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순결을 음식물에 비유하여 순결을 잃은 것을 음식처럼 “먹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제주도속담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 (1) 여준 익은 음식이다
(여자는 익은 음식이다.)
- (2) 상뒤 가온 비발년광 드룻 가온 장은 버린다.
(상여 갔다온 처녀와 들판에 내놓았던 장은 버린다.)
- (3) 철 넘은 집치, 상뒤 가온 비바리.
(철 넘은 김치, 상여 다녀온 처녀.)
- (4) 망종넘은 보리, 수물 넘은 비바리.
(망종넘은 보리, 스물 넘은 처녀.)

(1)은 익은 음식은 누구나 탐낼 수 있으므로 간수를 잘하지 않으면 먹히기 쉽다는 뜻이다. 여자는 유년기가 지나 웬만큼 자라면 남자의 눈에는 관능의 대상으로 인식되므로 각별히 유의하지 않으면 화를 입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2)은 들판에 가지고 가 숟가락으로 이리저리 휘저으며 먹다남은 장은 가지고 오지만 맛을 그르쳐 알아주지 않는다는 뜻으로 ‘상뒤 가온 비바리’는 주로 남성들이 많이 모여있는 군중이 있는 곳을 다녀와 남성들과 어울렸던 처녀와 비유하고 있다. (3)도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김치는 일정기간 지나면 시어서 먹기가 곤란해지는 것처럼 처녀 역시 그렇다는, 여성에게는 시기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 속담이다. (4)의 망종은 24절기 중 하

나로 양력 6월 5일경이다. 이때는 보리가 이미 무르익은 후이므로 그 보릿대가 굽어져 수확에 애를 먹는다. 여자가 스물이 넘으면 혼기가 지난 노처녀라고 알아주지 않는다는 말이다. 여성은 어려야 하고 나이는 처녀는 쓸모가 없다는 말이다. 제주도 속담에서 여성이 음식으로 비유되는 경우는 주로 여성의 순결을 중시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5) 솥 강알광 예편 강알은 숙데길수록 좋다.
(솥 아궁이와 여자 사타구니는 헤집을수록 좋다.)
- (6) 여잔 먼저 뉵 나중에 일어난다.(여자는 먼저 누었다가 나중에 일어난다.)
- (7) 담터진 밧디 므쉬 안들랴. (울타리 담이 무너진 밧에 마소가 안들어오겠느냐?)

(5)는 솥의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 부지깽이로 그 불이 붙는 가운데를 자주 들먹거리며 헤집어 주고 쭈셔 주어야 불이 잘 붙는다는 것을 여성의 성적 생리와 동일시하여 빗대어 쓴 말이다. (6)은 성행위에 있어서 남녀의 위치를 가리키는 말이다. 여성은 먼저 누워서 먼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일어난다는 것을 빗대어 여성 하위를 말하고 싶은 것 같다. (7)는 울타리 담이 무너지면 마소가 쉽게 밧을 드나들 수 있다는 말인데 속뜻은 남편이 없는 여성의 집에 남성들이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음을 나타낸 말이다.

- (8) 비바리 늙어가민 ㄹ레착 지영 산더레 올른다.
(처녀 늙어가면 멧돌짝 저서 산으로 오른다.)
- (9) 시집 못간 비바리 살렛다리 심영 흥근다.
(시집 못간 처녀 찬장다리 잡아서 혼든다).

(8)와 (9)는 결혼이 필수라고 여기는 문화여서 혼기가 지난 여성의 행동을 비난하는 말이다. 이 행동은 자위행위를 한다는 내포된 뜻이 들어있는 듯하다. 여자가 결혼 적령기를 지나서 하는 모든 행동을 결혼과 결부시켜

서 결혼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행동으로 몰아붙인다.

3) 여성 행동의 통제

여성의 주생활 공간은 가정이며 여성에게 순종, 여성다움을 주입시키는 것이 속담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 (1) 여즈 소리 정주목 바깥되 나민 집안 망한다.
(여자소리가 대문밖에 나가면 집안이 망한다.)
- (2) 비바리 웃음은 벳말축 튀는 것 담나.
(비바리 웃음은 벳쟁이 튀는 것 같다.)
- (3) 독은 국국흐민 새끼 나곡, 여존 국국흐민 승시난다.
(닭은 꼭꼭하면 달걀을 낳고, 여자는 꼭꼭하면 탈이 난다.)
- (4) 밤중에 놀레 덩기민 유녀엔 혼다.(밤중에 놀러 다니면 유녀라고 한다.)
- (5) 비바리가 머릴 풀영 문지방 넘으면 시집못간다.
(처녀가 머리를 풀고 문지방을 넘으면 시집 못간다.)

(1) 여자가 소리가 크면 집안이 망한다는 속담이다. (2)는 처녀는 조그만 일에도 깔깔거리며 실없이 웃어대는 습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웃음소리가 자극적이고 경망스럽다는 표현이다. 비슷한 말로 “비바린 뭇똥만 꺾어도 웃나.(처녀는 말 방귀만 꺾어도 웃는다.)”가 있다. (3)는 암탉이 ‘국국’하면서 돌아다니면 알을 낳을 징조이지만, 여자가 그럴 경우에는 흉잡힐 일이 생긴다는 것이다. 여자가 시끄럽게 나서고 돌아다니면 안 좋은 일이 있다는 뜻이다. (4)는 여성은 밖에 나갔다가도 해가 떨어지면 집으로 돌아오라는 말이다. ‘유녀(遊女)’라고 지칭하면서 밤에 돌아다니는 것을 금기하고 있다. (5)는 단정한 몸가짐을 요구하는 속담이다. 머리를 풀어 헤치고 방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몸가짐을 바르게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우리의 옛 조상들은 머리를 곱게 땡거나 비녀를 하여 곱게 정돈된 모습이므로 머리를 풀어헤친 모습은 단정하지 않은 모습일 것이다. 그런 단정치 못한 모습으로 돌아다니면 소문이 나서 혹은 게으른 여성으로 알려져 결혼을 못한

다는 것일 것이다.

여성은 언행을 조심하여야 하며 소리가 크거나 단정치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을 사회화하고 있다.

2. 여아 선호 사상

제주에서는 남자아이보다 여자아이를 더 선호했다는 말이 있다. 속담에서도 남자아이 보다는 여자아이가 더 좋다거나 여자아이 탄생을 반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 (1) 첫딸은 살림 밑천이다.(첫딸은 살림 밑천이다.)
- (2) 첫딸은 종부릴 팔자에 난다.(첫딸은 종부릴 팔자에 낳는다.)

딸은 자라면서 어머니 대신 집안일을 거들기 때문에 이런 말이 생겼다. 특히 큰딸은 어머니를 도와서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게 된다. 딸을 낳으면 산모를 위로할 겸 지금도 주변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다. 딸로 태어나면 귀한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집안일을 할 일꾼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딸이라서 좋다는 뜻으로 보이지만 속뜻은 아들이 아니어서 섭섭하지만 딸을 낳아서 집안에 일꾼이 하나 생겼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 (3) 딸 놔 둥 양재 안 돌곡, 피 놔둬 양식 안 빚진다.
(딸 뒤 두고 양자 안들이고 피 뒤 두고 양식 안 빚진다.)
- (4) 아들 못난 건 이녀 집 망하여도, 딸 못난 것 양 사둔이 다 망한다.
(아들 못난 것은 자기 집안만 망하여도 딸 못난 것은 양 사둔이 다 망한다.)
- (5) 나 집 가운은 놈이 집 처녀에 멘다.(내 집 가운은 남의 집 처녀에 달려있다.)

여성은 출가외인이라는 데서 탐탁한 존재는 아니었으나 때로 혈육의 정을 중히 여겨 남자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딸만 있으면 양자를 안 들입

으로써 남의 피를 받는 남자보다 훨씬 귀중한 존재임을 드러냈다. (4)와 (5)은 여자는 가운을 좌우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어 여자 한사람이 잘못되면 친가 시가 모두 망한다는 것이다.

- (6) 딸은 나민 도새기 잡앙 잔치훅곡, 아들은 나민 발길로 조롭팍 찬다.
(딸은 나면 돼지 잡아서 잔치하고, 아들은 나면 발길로 궁둥이 찬다)

이 속담은 남존여비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시대였음에도 여성의 우위성을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런 속담은 제주를 성평등의 사회 혹은 여성 상위의 사회로 보기도 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여성들이 생산의 주 담당자였고 과중한 노동을 담당하고 있었다면 경제적 권리에서도 평등했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녀들의 출가하여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끼니도 제대로 배불리 먹지 못하면서 모은 돈은 남편이나 시가족의 교육을 위해 쓰이거나 남편 명의의 밭은 사는데 쓰였다. 또한 상속에 있어서도 지역에 따라 딸에게 약간의 토지를 상속하는 경우는 있지만 주로 큰 아들이 상속 받거나 아들들이 균등하게 상속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제사 의례에 있어서도 남성들은 제사를 주관하였고 여성들은 제수의 준비와 뒷설거지를 담당한다. 이렇게 볼 때 제주여성 속담에 나타나는 것처럼 여아의 탄생을 잔치하면서 반긴다는 것은 역측이 있어 보인다.

- (7) 딸자식은 피곡식만 못하다.(딸자식은 피곡식만 못하다.)
- (8) 열 아들 말덴 안 현다.(열아들 싫다고 하지 않는다.)
- (9) 아덜 가진 사람은 옷질로 견곡, 딸 가진 사람은 아랫질로 걷나.
(아들가진 사람은 윗길로 걷고, 딸 가진 사람은 아랫길로 걷는다.)

곡식 중에 ‘피’는 보잘 것 없는데 (7)은 딸이 그렇게 미미한 존재임을 역설하고 있다. 먹고 살기 어려웠던 시절에는 쌀을 빌려다 먹었는데 피곡식만 있어도 먹을 수 있으니까 남에게 빌려오지 않지만 딸자식만 있으면 양자를 들였었다. 딸과 피곡식을 비유하는 것으로 봐서 딸은 피곡식만도 못

한 존재임을 알려주는 속담이다. 위에서 언급한 ‘딸 놔 똥 양재 안 돌곡, 피 놔똥 양식 안 빚진다. (딸 뉘 두고 양자 안들이고 피 뉘 두고 양식 안 빚진다.)’라는 속담과 대조적이다. 피곡식 보다 못하다고 하기도 하고 낫다고도 하니 어떤 것이 맞는지는 모르나 속담이 오랜 세월 구전되는 과정에서 ‘피곡식만 못하다’에서 그보다는 낫다는 말이 생긴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8) 아들 아홉 낳고 딸 하나 낳아도 ‘딸이구나’하며 섭섭하다는 말이다. 딸이 태어나서 좋기는 하지만 아들이 아니어서 섭섭한 것이다. 지금은 물론 많이 달라졌지만 시어머니나 남편은 아들을 열명 낳아도 좋아한다고 한다. (9)는 아들이 있는 부모는 당당하게 행동하지만 딸을 가진 부모는 죄인처럼 열등감을 갖고 살아간다는 말이다.

아들은 태어나면 발로 차고 딸은 잔치를 할 정도로 딸을 좋아한 이면에는 가계 소득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제주도의 딸들은 밭일을 비롯해 잠수질로 해산물을 채취해 냄으로써 가정 경제에 큰 도움을 주는 소득원의 구실을 했기 때문이다.

3. 강인한 제주여성

제주여성의 강인함이 부각되어 운명을 극복하는 철의 여인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제주도 속담에서도 여성의 끈기와 강인함이 잘 드러난다.

- (1) 봄 해엔 애기 둘앙 흐린조 한 말 버신다.
(봄 해에는 애기 데리고서 찰조 한 말 벌어들인다.)
- (2) 애기 어멍 삼스월엔 돌이라도 니 아니 들엉 못 먹나.
(애기 어머니는 삼사월에는 돌맹이라도 이빨 아니 들어서 못먹는다.)
- (3) 줌녀 애긴 일뤼만에 것 맥인다.
(해녀 애기는 이레만에 밥먹인다.)
- (4) 줌년 애기 나똥 사을이민 물에 든다.
(해녀는 애기를 낳고 사흘이면 물에 든다.)

(1)은 아이를 업고 다니면서 남의 일을 돕거나 품팔이를 해서 찰조 한

말을 벌어들인다는 말로 제주 여성은 아기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집안식구를 위한 일인 이역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3), (4)는 해녀들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몸조리도 하지 않고 사흘만에 바닷물에 들어가야 하고 애기는 7일만에 밥을 먹여야 하는 처절한 생활고를 엿볼 수 있다.

근면한 해녀상은 해녀들에게 억압적인 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다. 해녀들은 물질, 밭일, 가사일 등을 거의 전담해야 했고, 권리와 자유보다는 의무와 책임이 더 많은 슈퍼우먼으로 무의식중에 내면화된 것이다. 이것은 해녀들을 일로 내모는 담론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해녀들의 자녀 세대 여성들에게도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젊은 세대의 남성들은 근면한 해녀인 어머니상을 여성들에게 강요할 수 있고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가부장제적 이데올로기와 결합될 때 남성중심적 성격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⁵⁾

제주여성이 운명을 극복하는 강인한 여성이라고 제주사회가 혹은 제주의 남성사회가 인정하고 있었다기 보다는 척박한 제주환경을 극복하고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제주사회가 강인한 제주여성을 원했다고 할 수 있다.

1) 여성 운명결정론

자신의 운명보다는 아내의 섣 사주 때문에 일찍 죽게 된다든지 불행한 삶이 예견되어 있다면 어느 누가 이런 여성과 결혼을 하겠는가? 여자 사주가 세면 평범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사회의식이 제주도 속담에 강하게 나타난다.

- (1) 물띠 여자는 팔자가 세다.(말띠 여자는 팔자가 세다.)
- (2) 여자 9월생이면 스주가 썩다.(여자가 9월에 태어나면 사주가 세다.)
- (3) 여자 정월생이면 팔자가 사납다.(여자가 1월에 태어나면 팔자가 사납다.)
- (4) 원스주가 섣 사름은 칩으로 가사 잘산다.

5) 권귀숙, 「제주 해녀의 신화와 실체:조혜정 교수의 해녀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0집, p.241.

(원래 사주가 센 사람은 첩으로 가야 잘 산다.)

(5) 양지에 푸리춤이 한 여자는 팔자가 세다.

(얼굴에 주근깨가 많은 여자는 팔자가 세다.)

(1)에는 '딸'은 넓은 들판을 누비며 자유롭게 살아가지만 여성이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면 나쁘다는 고정관념이 들어 있다. 이는 여성은 집안에서만 생활해야 한다는 믿음이 강하기 때문이며,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시절의 이야기다. 제주속담에서 여성에게 요구사항이 많다면 여성이 가정의 경제적 책임을 지고, 경제 사회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들이 밖으로 나다니면 여성들이 변화될 것에 대한 두려움, 염려 때문에 여성에게 구속을 요구했는지도 모른다.⁶⁾ 여성은 태어나면서부터 띠와 달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는 것처럼 인식되었다. 범띠는 정월 초에 태어나면 팔자가 사납다거나 여성의 모든 띠는 9월생은 무조건 나쁘다고 보는 것에서 알 수 있다. 남자의 사주는 세도 되는데 여성은 그러면 팔자가 사나워서 결혼해도 불행하다고 한다. 그래서 (4)처럼 첩이 되어야만 나쁜 기운이 사그라져서 평탄하게 결혼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5)는 여성의 얼굴이 보기 흉하면 남성들이 접근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 결혼하기도 힘들다는 관점이다. 그러나 주근깨가 나는 것이 자기의지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일도 아닌데 여성의 외모가 여성의 운명이 결정한다고 보는 것이다.

2) 여성과 결혼

(1) 소나이 잘못 만나면 죽 삼시 매 삼시.

(남자 잘못 만나면 죽 세 끼니 매 세 때.)

(2) 딸은 놈의 집 산천에 난다.(딸은 남의 집 산천에 난다.)

여성은 남편을 잘못 만나면 끼니도 죽도 겨우 얻어먹게 되는 데다 매도

6) 문순덕, 앞의 책, p.95.

늘 맞는다는 뜻이다. ‘여자팔자 뒤웅박신세’란 말이 연상된다. 여성은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남편의 운명에 의해 좌우된다는 말이다. 결혼을 통해서 여성의 운명은 배우자인 남성에게 의해 좌우된다는 것이다. (2)는 딸을 낳아서 성장시키면 으레 남의 가문으로 시집보내야 하기 때문에 딸은 낳는 순간부터 어느 가문의 며느릿감으로 점지된 숙명을 타고 난다는 말이다.

(3) 앞니 넓은 예쁜 소나이 상덕을 먹나.(앞니 넓은 여자는 남편의 덕을 받는다.)

(4) 췌고고리가 크민 소나이 상덕을 먹나.(젓꼭지가 크면 남편 덕이 있다.)

여성의 신체부위와 남편의 덕을 비유하고 있다. 여성의 생김새 중에서 앞니가 넓고 젓꼭지가 크면 그 크기만큼 남편의 그늘에서 행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여성의 행·불행은 남편에게 달려있다는 남성중심사상이 강한 속담이며 여성에게 결혼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드러내는 말이기도 하다. ‘남편 잘 만날 팔자’운운하면서 그 반대로 ‘아내 잘 만날 팔자’운운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결혼생활의 중심이 남편에게 달려있다는 남성중심 사상이 강한 속담이라 할 수 있다.

(5) 비바리가 머릴 풀영 문지방 넘으면 시집못간다.

(처녀가 머리를 풀고 문지방을 넘으면 시집 못간다.)

(6) 비바리로 늙어 죽영 저승가민 망데기 씌운다.

(처녀로 늙어 죽어서 저승가면 용기를 씌운다.)

(5), (6)은 처녀귀신이 있으면 안 되며 이승에서 살 때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는 강제성이 들어있다. 여성에게 있어 결혼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되어지는 것이다. ‘~하면 결혼 못한다’는 인식은 여성에게 금기사항을 제시하여 여성에게 어떤 결함이 있으면 안 되며 여성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처녀에 대해서만 결혼을 최상의 선택인 반면에 총각의 행동을 규제하는 속담은 없다. 남성은 누구나, 언제나 결혼할 수 있는

주체인데 여성은 그럴 수 없다는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 (7) 늪이 침광 소낭엿 보름은 소린 나도 살을 매 웃나.
(남의 침과 소나무에 바람은 소리가 나도 살도리가 없다.)
- (8) 오름에 돌광 지세어명은 둥글어 땡기당도 살을 매 난다.
(산의 돌과 본치는 둥글다가도 살 도리가 생긴다.)

(7)은 침살이하는 여자는 마치 소나무에 바람이 불어서 요란한 소리만 내는 것처럼 실속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남편의 일시적인 사랑을 받을지는 모르나, 주위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8)도 비슷한 내용으로 조강치처는 어떻든 살 도리가 생긴다하여 여성의 재혼에 제약을 두는 유교적인 정조관념을 교육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남성은 여성을 소유의 대상으로 여겨서 아내도 소유의 대상으로 보았다. 그래서 여성은 남편의 울타리 안에서만, 그 행동반경 내에서만 존재 가능하며 그곳을 이탈했을 때 가해지는 정신적 체벌은 가혹하다. 소유의 대상이기에 남성과 대등한 눈높이에 오를 수 없으며 대등, 평등의 단어가 설 곳이 없다.⁷⁾

4. 제주여성의 근면성

제주여성은 근면하다고 널리 알려져 있다. 제주도 여성의 근면성은 전세계적인 본보기로 예찬되는가 하면 제주 여성 스스로가 일 없이는 못사는 기질을 지녔다거나 노동 자체를 즐긴다고 평가되기도 하며, 불가사의한 저력을 가진 여성의 모습으로 적극적으로 불합리나 부조리에 대항하는 여장부의 모습으로 그려진다. 제주 여성 속담에서도 근면한 제주 여성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7) 위의 책, p. 149.

- (1) 어멍은 빌어온 장 아방 뭇똥만씩 먹나.
(어멍은 빌어온 장 아버지는 뭇똥만씩 먹는다.)
- (2) 홀아방은 웨문 웨돌쳐귀, 홀어멍은 청동화리가 아홉.
(홀아비는 외문에 외돌쳐귀, 홀어미는 청동화로가 아홉.)
- (3) 홀아방 삼년에 쉬가 서 말, 홀어멍 삼년에 췌가 서 말.
(할아버지 삼년에 서태가 서 말, 홀어미 삼년에 췌가 서 말.)
- (4) 질쌔밭 늙은인 죽영 보난 미녕소중의가 아웁이고, 좀녀 늙은인 죽영 보난 일곱 애비 아들이 들르는 도곰수건이 하나인나.(길쌔밭 늙은이는 죽어서 보니 무명고쟁이가 아웁이고, 좀녀 늙은이는 죽어서 보니 일곱 아버 아들이 드는 도곰수건이 하나이다.)
- (5) 남즈 드딘 풀은 유울곡, 예펜 드딘 풀은 안 유운다.
(남자 밟은 풀은 시들고, 여자 밟은 풀은 안 시든다.)
- (6) 노 허끈 하르방은 아장 울곡, 실 허끈 할망은 아장 푼다.
(노 흐트린 할아버지는 앉아서 울고, 실 흐트린 할머니는 앉아서 푼다.)

위의 속담을 통해서 제주여성의 근면성과 성실함을 읽을 수 있다. 이에 반해 무능력한 남성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1)은 어머니가 고달프게 일을 하여 얻어온 된장을 아버지는 남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알아 뭇똥 크기만큼이나 먹는다는 것으로 남성의 몰인정하고 이기적인 모습을 빗대어 쓴 말이다. (2) 남자는 홀아비로 살면 돌쩌귀 하나로 움직이는 한쪽짜리 쪽문이 달린 오막살이에 살지만 홀어미는 청동화로 아홉 개를 마련해서 살 만큼 부유한 생활환경을 이룩해 낸다는 것이다. (3),(4)역시 (2)와 내용이 비슷한데 여성의 생활력이 남성 보다 뛰어난 것을 말하고 있다. 새끼줄과 실은 일단 헝클어져 뒤엎기면 풀어내기 어렵다. 그것도 새끼줄 보다는 실이 더 어렵다. 그런데도 (4)에서처럼 실을 헝클어뜨린 할머니는 차분히 앉아서 풀어내지만 그것보다 쉬운 새끼줄을 헝클어뜨린 할아버지는 풀지 못해 주저앉아서 운다는 것이다.

이 속담들은 액면 그대로 제주여성은 근면하고 강인하며 제주도 남성은 생활력이 없고 무능하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제주 여성의 근면성을 보여주는 제주 속담은 제주 여성들에게 남성들은 원래 그러하니

여성들이 더욱 근면하게 일해야 한다는 것을 강요하고 있다. 여성이 근면과 남성의 게으름을 정당화하는 언어장치로서 속담이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남성들에게는 그들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더욱 강화시켜주는 도구로서, 여성들에게는 억압적인 무의식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음의 속담들을 보면 제주 여성에게 노동이 어떻게 정당화 되고 있었는지 명확히 알 수 있다.

- (7) 여즈로 나느니 췌로 나는 게 낫다.
(여자로 태어나느니 소로 태어나는게 낫다.)
- (8) 비바리광 쟁봉롱인 쓸되 씨 봐사안다.
(처녀와 솟송아지는 쓸데 씨 봐야 안다.)

여성을 가축인 '소'에 비유하고 있다. 이러한 말은 여성 스스로 팔자가 나빠서 여자로 태어나서 소보다도 못한 인생이라고 열등감이 드러난 속담이다. (8)는 소는 일을 부려보지 않은 부록 송아지 때는 농가의 소중한 부림소의 자질을 갖춘 황소감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처럼 처녀도 결혼하여 살아봐야 그 됨됨이가 드러난다는 말이다. 이는 집안에서건 사회에서건 여성을 대하는 태도 때문에 생겨난 말이다.

- (9) 소나이가 웨방 나갈 때 바농질 허영 입영 가민 며정 엇나.
(사내가 출타를 할때 바느질 해서 입고 가면 재수없다.)
- (10) 소나이가 꼭박으로 물을 거렁 먹으민 쉬염 안난다.
(사내가 바가지로 물을 떠 먹으면 수염 안난다.)

(3)은 길 떠나기 전에 미리미리 점검하라는 뜻인데 그 점검은 아내의 몫이다. 겉으로는 남성을 나무라는 것 같지만 그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고 있다. (4)는 남성이 음식을 만드는 것 혹은 부엌 출입하는 것을 금하며 스스로 물을 떠 먹어서도 안 된다고 하고 있다. 정말 수염 안날 리는 없고 그런 행동은 여성들이나 하는 것이지 남성이 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여성

과 남성의 행동이 엄연히 구별 되어있어 여성들은 조그마한 바가지로 물을 떠먹어도 되고 남성은 직접 떠먹지 말고 여성이 떠 주는 것을 먹어야 한다는 뜻이 숨어 있다. 어쨌든 남성은 모든 것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그 품위와 준비는 여성의 노동과 희생이 전제된 것임은 당연하다.

여성들이 비록 주관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일한다고 하더라도 남성들에게는 '게으름'이 장려되는 상황이라면, 여성의 과중한 노동은 오히려 남성에 의한 여성의 착취의 결과, 또는 실제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철저히 지배한 결과로서 해석되어야 한다. 비록 여성의 노동이 자발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여성의 근면성과 노동 윤리의 예찬은 남성 지배적인 이데올로기가 잠재되어 있다⁸⁾고 할 수 있다.

Ⅲ. 마치며

속담의 특성이 일반적이고 보편적 진리성과 대중의 지혜에서 추출된 교훈성에 있다고 할 때 여성속담은 여성의 문화적 상황 즉 여성의 차별현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성이라 하더라도 어머니의 경우에는 일반여성에게 적용되는 비하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어머니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사회 인식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속담에서 어머니의 위대함을 언급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외의 일반적인 여성에 대해 제주도 여성속담에서처럼 여성의 근면성과 강인함을 보이는 속담은 눈에 띄지 않는다.

제주도 여성 속담 중에서 여성 존중과 비하 드러나는 속담에 한정하여 여성들의 위치와 역할이 속담 속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제주 여성의 강인함과 근면성을 표현한 속담들이 과연 여성을 존중하고

8) 권귀숙, 「제주해녀의 신화와 실제: 조혜정 교수의 해녀론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학』 30집, pp.250~251.

여성우위의 사회를 나타내는 것이겠는가 하는 것에 의문을 두고 제주도 여성속담의 이중성에 대해 논의를 전개하였다.

제주도 여성속담의 이중성은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육지부 여성속담과 다르게 여성 존중과 여성비하 두 종류의 속담이 공존한다는 이중성과 여성 존중의 내용을 담고 있는 속담의 외면적인 모습과 숨은 뜻이 다른 이중성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제주도 속담 중에서도 여성 속담에는 여성 존중과 여성 비하의 속담이 두 부류가 공존하는데, 이는 남성중심의 유교문화와 여성의 노동력을 요하는 제주 사회의 두 가지 환경이 만들어낸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속담이 시대상과 생활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제주도는 여성의 강인함과 근면성이 요구되는 사회였다. 제주의 여성들은 척박한 땅을 일구어 밭농사를 짓고, 바다에 몸을 던져 해산물을 채취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로 이러한 생활상이 그대로 여성속담의 생성요인이자 배경이 되고 있다할 것이다. 제주도의 경우 남성의 부재로 인한 여성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의 증가는 외면적인 모습처럼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제주도 사회의 남성중심 이데올로기는 여성의 불가피한 노동량 증가를 정당화하기 위한 언어적 장치로 속담이 선택했다. 육지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여성의 노동력이 절실히 필요했던 제주 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여성의 노동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속담이 기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여성 존중의 의미를 담고 있는 제주 여성속담들이 외면적으로 외모지상주의 부정, 여아선호사상, 강인한 제주여성, 제주여성의 근면성을 표방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제주 여성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을 해야 하고 강인하고 근면해야한다는 것을 사회화하고 있다.

흔히 제주 여성은 강하고 진취적이고, 경제활동을 담당해 왔고 제주에는 강하고 활동적인 여성들만이 사는 것처럼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한다면 여성의 노동력이 절실했던 제주도에서 여성에게 농사일과 해녀일 그리고 집안일을 모두 해내게 하는 '슈퍼우먼'을 강요한 것은 아니

있을까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더불어 그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언어적 장치가 속담이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제주도 여성 속담이 외면적으로 제주여성의 강인함과 근면성을 찬양하면서도 그 이면에서는 여성 노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제주도 여성 속담의 '강인한 제주 여성 이미지' 속에는 숨겨진 또 다른 방식의 착취가 숨어있다고 할 수 있다. 남성 중심 이데올로기가 제주여성들을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강인하고 근면하게 일해야 한다고 사회화하고, 제주 여성들이 무의식적으로 스스로를 강인하고 근면한 여성이라고 내면화하는 것이 제주도 여성속담이 가지고 있는 두 얼굴이 아닌가 한다.

- 핵심어: 제주도 여성속담, 이중성, 강인한 제주여성, 근면성, 여성존중, 여성비하, 여아선호.

<참고문헌>

- 고재환, 「제주도 여성속담」, 『국어국문학』86, 국어국문학회, 1981.
 고재환, 『제주도 속담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6.
 고재환, 『제주도 속담 연구』, 집문당, 1993.
 고재환, 『제주도 속담 사전』, 민속원, 2002.
 권귀숙, 「제주해녀의 신화와 실체; 조혜정 교수의 해녀론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학』30, 1996.
 김경숙, 「여성지칭 속담의 제특성 고찰」, 『프랑스학 연구』20, 2001.
 문순덕, 「속담으로 만나는 제주 여성어」, 『제주여성문화』, 제주도, 2001.
 문순덕, 『제주 여성 속담으로 바라본 통과의례』,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4.
 이종철, 『속담의 형태적 양상과 지도 방법』, 1998.
 이기문, 『국어의 현실과 이상』, 문학과지성사, 1997.
 이나영, 「언어문화를 담고 있는 타임캡슐들」, 『한국의 언어문화』, 경북대

출판부, 2003.

이석규, 「속담의 의미론적 연구」, 『언어와 사회』, 도서출판 역락, 2003.

전혜영, 「여성 대상 표현에 나타난 여성의 사회적 위치」, 『언어와 여성
의 사회적 지위』, 태학사, 1999.

최창렬, 『우리 속담 연구』, 일지사, 2002.

황경자 외, 『속담의 의미와 기능』, 태학사, 2002.

<Abstract>

Dualism of Women-Related Jeju Proverbs

Kim Mi-jin

Jeju women are generally recognized as they are strong, enterprising, and in charge of economic activities, so that symbolic images of Jeju women are strong and active women. However, in the perspective of Jeju women, there is the possibility that they might be forced to be 'superwomen' who do farming, do the job of a woman diver and household chores. This study assumes that the proverbs mistify women in order to strengthen a male-dominated society; then, what kinds of meanings women-related proverbs have? This study starts from here.

Unlike women-related non-island region's proverbs, women-related Jeju proverbs are classified into two kinds: respecting women and defaming women. Especially, proverbs for respecting women shows dualism: they have the different inner meaning unlike the external meaning.

First, women-related Jeju proverbs among Jeju proverbs have two kinds for respecting women and defaming women; it can be said that both Jeju environments of a male-dominant Confucianism culture and high-required female labor created such two kinds of proverbs.

Second, women-related Jeju proverbs for respecting women present the denial of value orienting beautiful appearance, the value of preferring girls, strong Jeju women and industriousness of Jeju women, while they contribute to socialization of women who should work in any difficult situation, should be strong and should be industrious.

It can be said that 'strong Jeju female image' in women-related Jeju proverbs disguise the exploitation of female labor.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male-dominant ideology contributes to socialization of women who should work hard in any difficult situation, so that Jeju women unconsciously internalize that they are strong and industrious themselves, which might be the role of women-related Jeju proverbs.

- Key words: Jeju island women-related proverbs, dualism, strong Jeju women, industriousness, respecting women, defaming women, the value of preferring girls.

연미마을 이사제(里社祭) 연구

김 동 섭*

차 례

1. 서론
2. 조사지 개관
3. 전래 이사제의 전통
4. 현행 마을제 진행 특성과 고유성
5. 결론

1. 서론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 살았거나 열악한 생활환경 속에서 태풍,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는 물론 농경과 어로 등 생활 속에서 겪는 한계로 우리의 생활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해 왔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안전된 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체계로서 마을제는 마을민의 안녕을 위한 공동적 제의로서 마을민의 단결과 협동에 기여하여 온 것이다. <2007 마을제 봉행 현황>¹⁾에 의하면 제주도내에서는 지금도 156개 마을에서 마을제를 봉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들 마을제에는 크게 여성들에 의한 무속식 마을제와 남성들에 의한 유교식 마을제가 함께 행해지고 있음은 물론

*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위원회전문위원, 박물관운영부 연구관

1) 제주도청 총무과 김창세 씨 제공

이다. 그것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 2007년도 마을제 봉행 현황표

구 분	수량	제주시	서귀포시
계	156	120	36
유교식	137	101	36
무속식	18	18	0
기타	1	1	0

본고는 제주에서 행해지고 있는 남성들의 유교식 마을제의 고유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별적 연구의 하나로 제주시 연미마을에서 행해지고 있는 마을제의 실상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마을제 이외에도 기우제²⁾가 있어 유교식(儒敎式)으로 봉행된다고 한다.

우선 조사지에 대해 문헌 및 현지조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조사지의 고유성을 밝히고 특히 마을제의 이해를 위해 민간신앙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검토도 아울러 시행하고자 한다. 그리고 면밀한 현지조사를 통해 제관 및 마을민의 마을제에 대한 인식도 함께 조사하여 밝히고자 한다. 본고를 위한 현지조사는 2008년 무자년 연미마을 입제일인 2008년 2월 4일부터 2월 6일까지, 연미마을회관에서 이루어졌다. 이 기간 동안 김선기(남, 63) 마을회장, 노인회장, 마을원로, 이규집 초헌관과 고한중 집례, 고영수(남, 42) 청년회장과 여러 집사들의 도움이 컸으므로 이름을 밝혀 고마움을 전한다.

제주도 마을제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현용준, 진성기, 이완중, 문무병, 김

2) 기우제(祈雨祭)는 비가 오지 않을 때, 천신(天神)에게 “비를 내려주소서” 기원하는 제의(祭儀)로, 최근에는 수도 시설 등으로 별로 지내지 않았지만, 옛날 비가 오지 않았을 때는 정시(地官)에게 가서 날을 택일한 다음, 자시(子時)에 제를 지냈다고 한다. 제관(祭官)은 이장(里長)과 마을 유지(有志)들이 되며, 제물(祭物)은 간소하게 차려 지냈다고 한다. 현재영, 『溫平里誌』, 도평동, 1991. 250쪽

동섭의 것을 살필 수 있다. 현용준(玄容駿)³⁾은 제주도 유식 마을제에 대한 형성과 종류, 실태를 설명하였고, 진성기(秦聖麒)⁴⁾는 포제당과 부락제를 간략하게 설명한 바 있다. 이완종(李完鐘)⁵⁾은 유교식 마을제와 무속식 마을제를 개관(概觀)하고 축문(祝文)의 실례를 찾아 밝히고 있으며, 김동섭(金東燮)⁶⁾은 제주도 마을제에 유·무속식(巫俗式)이 상존하고 있음을 밝혀 제주문화의 특징으로 삼은 바 있으며, 법환동의 포제를 조사해 보고한 바도 있다. 그러나 법환동의 연구 이외의 어느 것도 제의 현장의 참여 관찰 없이 이루어진 한계를 지니고 있다.

제주 고유의 마을제에 대한 특성과 보편성을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본 연구에서 제주도 전 지역의 마을제를 대상으로 해야 하지만, 본고에서는 참여관찰의 대상으로 지역적인 균형을 고려하여 제주시 연미마을에서 행해지고 있는 마을제로 그 대상을 제한하여 다루고자 한다.

마을민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한 마을제로 언제부터 포제(酺祭)가 치러졌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어떤 모습으로 마을제를 봉행해 왔는지, 오늘날은 어떠한 모습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게 될는지 살펴보고, 마을민의 안녕을 도모하기 위한 소중한 문화유산이 사라지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을제의 어제와 오늘을 기록하는 일을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현지를 찾아 증거물인 제관기(祭官記)와 물종기(物種記)를 살피고, 3일간의 정성으로 준비하는 마을제의 과정을 기록으로 담아두려고 하는 것이다.

3) 현용준, 「제주도 유식 마을제」, 『석주선교수회갑기념논총』(민속학논총), 동간행 위원회, 1971

4) 秦聖麒, 「酺祭堂과 部落祭」, 『濟州島巫俗論考』, 濟州民俗研究所, 1993

5) 李完鐘, 「濟州島 마을제에 대한 고찰」, 제주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95

6) 김동섭, 「제주의 민속문화의 특징」, 『제주의 민속과 자연』,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1995; 김동섭, 「서귀포시법환동마을제연구」, 『영주어문』(제7집), 2004. 59~86쪽

2. 조사지 개관

제주시 시가지 남쪽의 중산간지대에 산재한 마을로 오라2동은 동쪽으로는 도남동 및 아라동과 경계를 이룬다. 세계섬문화축제가 열린 바 있는 오라관광지구를 포함하며, 서쪽으로는 연동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옛부터 ‘한내서카름’이라 하며 ‘한천’, ‘한내’라고 부르는 큰 하천이 흐르는 서쪽 편에 위치한 마을로, 사평마을, 연미마을, 정실마을, 동성마을 등의 자연생성 마을이 합쳐져 구성된 행정동인 것이다.

<표 2> 오라동 인구내역(1985. 10. 1현재)⁷⁾

마을명	계	오라1동	사평	연미	오라3	정실
주택수	812	269	166	73	156	148
가구수	1,379	519	281	104	256	219
인구수	5,495	2,134	1,143	440	1,036	742

사평마을에 각종 전국탁구대회에서 상위권에 입상하는 성적을 내고 있는 오라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연미마을 남측에는 시민들이 건강을 위해 즐겨 찾는 민오름이 위치해 있고, 민오름 북측에는 을사조약과 한일합방의 치욕을 씻고 왜적에 항거하고자 뜻을 같이한 12지사의 애국정신이 서려 있는 ‘조설대’가 있다. 정실마을은 제주시 중산간마을로는 1978년 처음으로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실시한 마을로 제주교도소와 오라골프장이 들어서 있어 관광지로서 큰 몫을 하고 있는 곳이다.

연미라는 의미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처음에는 연미를 나타내는 한자로 ‘연미(燕尾)’를 사용하였다고 한다. 이는 지리상 마을이 제비집처럼 중앙 움푹 파인 분지(盆地)형으로 넓은 터에 갖혀 있는 형국을 하고 있어서 붙여진 것이라고 한다. 지금도 낮은 지대에 형성되어 있는 터라, 시내에 나가 밤에 연미마을의 불빛을 찾으려 해도 전혀 찾을 수 없는 것이다.

7) 강익진, 『향토지(오라동)』, 1987, 오라국민학교, 9쪽

원래 연미마을의 설촌지는 ‘둘라리’ 혹은 ‘월라리’라 불리는 곳으로 400~350여년전 문씨(文氏) 선조가 들어와 살면서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그 다음으로 고씨(高氏)와 이씨(李氏)가 들어와 대성을 이루고 살고 있는 마을이라고 한다. 그러나 특성 성씨(姓氏)가 특히 많이 사는 동성마을의 특성을 지니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어느 때에는 제비의 꼬리가 빠져버리게 되어 현재와 같은 한자 이름 연미(淵味)라는 마을 명칭을 쓰고 있는 것이다.

전해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마을이 형성되고 나서 130여 호에 이를 정도로 번창하고 있을 때 마을에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재가 큰 고민이었다고 한다. 이 때 마을을 지나가던 용한 지관(地官)이 마을의 지세를 살펴 보고는 “남조봉의 화각이 마을을 비추고 있는 형국이어서 화재가 발생하는 것이나 마을에 큰 물통을 파서 방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로부터 마을 사람들은 합심하여 마을안 큰 물통을 파게 되었는데, 이후로는 화재도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물통의 물맛도 뛰어나 연미(淵味)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마을은 번창해서 250호에 해당할 만큼 큰 마을이 되었으나 동회장에 의하면 지금은 호에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조금마한 마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표 3> 연미마을 인구현황(1985. 10. 1현재)⁹⁾

계	남	여	비고
440	233	207	3개반

연미(淵味)마을을 들어서려면 ‘연미마을’이라고 적어 놓은 표석(表石)은 3곳에서 만나게 되는데, 동동과 서동 입구 2곳과 서동 밑 남조로 입구에

8) 강익진, 『향토지(오라동)』, 1987, 오라국민학교. 14쪽

9) 강익진, 『향토지(오라동)』, 1987, 오라국민학교. 9쪽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을을 들어서면 연미마을은 동동, 옷동, 서동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되는데, 더 오랜 예전에는 '어우늘'과 '해산이'라고 불리는 곳에도 사람이 살았으나 4.3사건으로 소개(疏概)되면서 폐동되고 더 이상 복귀되지 않았음을 알게 된다.

마을 사람들은 여느 마을처럼 주거로 초가를 주로 이용하였다. 초가(草家)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홍보위(진달래 밭 바로 밑 지점)'까지 목재를 해와야 했다. 초가 1동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150~180개의 목재가 필요한데, 기둥, 서까래 등에 쓰이는 것으로 참나무를 주로 이용하였으나 소나무를 간혹 기둥에 해와 이용하기도 하였다. 서까래의 경우 하루에 5개를 할 수 있었으나, 마을 사람과 함께 가기도 하였으므로 나무만 하는데만도 3개월 정도가 걸리는 편이었다. 무척 힘든 일이었기 마을 사람들의 도움은 물론이었다.

이들이 식수(食水)나 용수(用水)로 이용하였던 '물통'이 17개에 해당할 정도였다. 그 당시만 해도 중산간마을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마을의 하나였다. 물통은 사람이 식수로 이용하였던 '구룽'과 소나 말의 식수나 용수로 이용하였던 '못'으로 구분하여 살필 수 있는데, 마을 내에서는 17개소에 달하는 큰 마을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구룽이 '새구룽'이다. 무슨 의미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가장 늦게 만든 새 것이라는 의미로 붙여진 것으로 추정된다.

연미출신 할머니¹⁰⁾에 의하면 일제시대(H帝時代) 김병효 구장(區長) 당시로 1930년경에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연미 마을 사람들은 물론, 사평마을 사람들과 오라3동 사람들도 무료 봉사로 작업에 참여하기도 했다고 한다. 바닥을 다지기 위해 춘흙을 가져다 깔면서 작업을 하였으며, 축담을 위해 자갈을 나르는 등 마을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 일만도 여러 날이 걸리는 일이었다고 한다.

'새구룽'은 전체적으로 직사각형을 보인다. 가로 21m, 세로 35m 정도로

10) 익명의 제보자는 1933년생으로 연미마을에서 나고 자랐으나 지금은 제주시 동문동으로 이사해 살고 있다.

약 735m²(220평)의 크기에 깊이 2m 내외로 축담을 쌓아 만들었다. 담의 넓이 1.3m 내외로 바깥의 밭의 대지보다 구렁의 깊이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깊이 내부를 조성하였다. 지금도 물이 고여 있는 것이다. 최근까지도 새 구렁에는 세갈래의 길이 폭 1.5m의 크기로 나 있었다. 그리고 1963년 연미마을에 공동 수도 3개가 설치되기 전에는 물팡돌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여름철 가물어 물이 없어지게 되면 날을 잡아 마을 사람 전부가 나와서 정천(淨泉)을 하고, 바닥에 쌓인 돌과 물풀, 흙 등을 건져내는 정화작업을 하면서 이용하여 왔다고 한다.

그러나 마을에서는 이것이 개인 소유의 부지내에 만들어진 것으로 지적되나 그것이 만들어진 곳의 지번 내에는 어떠한 표시도 되어 있지 않은 형상물인 것이다. 그러기에 마을 사람들은 자칫 아무 제재 없이 마을민의 피땀으로 만들어놓은 것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조바심을 내고 있는 것이다. 원래 이 땅은 오씨집안의 땅이었다고 한다. 당시만 해도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임목적으로 용인된 건축물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세상을 떠나고 아무 근거도 남기지 않은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사유 재산의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을 누구나 인정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행정당국에서 이를 개인으로부터 불하를 받아 조상의 소중한 자산으로 지켜내어야 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조상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문화유산이 사유재산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 소유자의 임의대로 처리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한다. 이를 보존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화산섬 제주에서의 농경은 밭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 돛거름을 내어 보리를 파종하여 겨울을 나면 보리밭 밟기와 검질매기를 거쳐 수확을 하게 된다. 산업구조를 보면, 농가 30%, 비농가 70%이다.

<표 4> 경작지 이용현황(2006. 12. 31현재)

계	전	과수원	임야	기타
751ha	264	158	245	84

조과종은 6월절(양력으로는 7월 6일) 전후해서 이루어진다. 1말지기가 150평으로 좋은 밭이면 소두 2섬, 30말 정도의 소득을 볼 수 있었으나, 평균적으로는 20말, 작게는 15말정도 수확을 보는 편이었다. 수확은 가을 상강(霜降)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물론 보리를 수확해 내고 나면 그곳에 좁씨를 파종하는데 그것 또한 수확을 해 들이면 도정을 해야 식량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제주도 어느 마을에 가게 되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자가용으로 이용하였던 물꺽레를 만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들이 살고 있는 마을의 중앙에 위치하기 마련이었던 것이다. 연미마을에서도 이 같이 공동으로 물꺽레를 설치하고 운영하였는데, 그것이 11개에 이를 정도로 농사를 많이 지었던 마을이었던 것이다.

<표 5> 물꺽레 분포내역¹¹⁾

마을명	계	오라1동	사평	연미	오라3	정실
수량	29	7	6	11	2	3

그리고 마을 마을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모여서 정보를 교환하였던 장소로서 폭낭거리가 마을마다 존재하였다. 동동의 삼거리의 '폭낭거리'는 마을 내 유일한 곳이었다. 이곳에는 여느 마을처럼 광들이 있어 낭그늘에 모여 더위를 식히면서 마을을 살필 수 있었던 곳이다. 이곳의 폭낭은 45년 전

11) 오라동향토지편찬위원회, 『오라동향토지』, 2003, 오라동주민자치위원회, 366~7쪽

에 심었던 것이다. 물론 등돌도 2개가 있어 마을 청장년들이 힘겨루기를 할 수 있도록도 하였다.

그리고 조설대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화단접원을 중심으로 준비하여 마을 사람 전체가 이용하였던 화단집이 있다.

3. 전래 이사제의 전통

언제부터 이사제를 지내게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이사제의(里社祭儀)』(20.5cm×20.3cm)라는 기록이 1918년인 대정(大正) 3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보아 그전부터 이사제(里社祭)가 거행되었음을 살필 수 있다. 이 밖에도 『무술정월(戊戌正月)』¹²⁾, 『토지매도증서(土地賣渡證書)』¹³⁾, 20.5cm×23.7cm, 『회의록(會議錄)』(기해(己亥))¹⁴⁾, 『회의록(會議錄)』(계해(癸亥))¹⁵⁾, 『회의록(會議錄)』(신미(辛未))¹⁶⁾, 『회의록(會議錄)』(경진(庚辰))¹⁷⁾의 기록을 살필 수 있어 기록년간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다. 제주도 어느 지역이나 피해가 많았었지만 중산간 마을이었던 연미마을은 특히 그 피해가 많았던 지역이었다.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손가락 하나라도 온전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12) 한지(韓紙)에 적은 기록으로 16cm × 19cm의 크기이다.

13) 한지(韓紙)를 묶은 것으로 20.5cm × 23.7cm의 크기를 보인다. 이 문서에서 중요한 사항을 발견할 수 있다. 토지를 매도(賣渡)하면서 작성한 문서로 번지를 사용하지 않고 사표(四標)로 위치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 번지를 이용하기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당시의 토지의 면적을 걸음걸이로 측정하였던 것으로 보아 이는 더욱 분명해 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이 문서는 1914년 시행되었던 토지측량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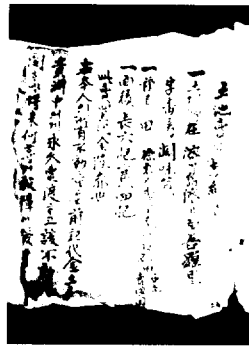
14) 한지를 묶은 기록으로 28×26cm의 크기를 보인다.

15) 한지를 묶은 기록으로 26.6×23cm의 크기를 보인다.

16) 한지를 묶은 기록으로 28×23cm의 크기를 보인다.

17) 한지를 묶은 기록으로 30×25cm의 크기를 보여주고 있다.

1) 제단(祭壇)



개인 소유의 토지 내에 위치하고 있다. 원토지 소유자가 제일교포로 지금은 토지매도증서(土地賣渡證書)를 발견하여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발견한 토지매도증서는 대정 6년(1921) 2월 10일 작성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상태가 낡아 보이지 않는 부분이 2줄 정도가 된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사진과 같다.

2) 제청, 제기

전사관택을 제청(祭廳)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전사관택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이용할 방과 제관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을 갖춘 집이어야 했다. 전사관으로 지정되면 내년엔 치를 제의 무상봉행을 위해 몸가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정성을 다할 뿐만 아니라, 제주(祭酒)로 사용할 청주를 얻기 위해 오메기술을 미리 담는 일, 희생으로 사용할 검은 도새기를 확보하는 일 등을 미리하게 되는 것이다.

3) 제관, 제복

무자년난(戊子年難)에 모든 것이 태워져 버려지고 마을을 복구(復舊)하여 다시 살기 시작한 것이 기축(己丑)년이다. 이때부터 사평마을과 이사제(里社祭)도 함께 베풀게 되는데 10여년간 한해씩 번갈아 가면서 제의를 봉행하게 된다. 이때는 두 마을의 중간에 위치한 어느 지점(묘소가 없고 깨끗한 곳)에 제단(祭壇)을 정하고 제의를 거행하였다. 그러다가 무술(戊戌)년에 이사제를 원래대로 각자 마을에서 거행하기로 하고 기해(己亥)년부터 오늘날과 같이 베풀게 되었다고 한다.

제복은 유건(儒巾)과 도포(道袍), 행경(行徑)으로 구성된다. 도포는 허리

띠와 술띠가 별도로 준비되어 착용하도록 되어 있다. 헌관과 집사의 도포 색깔이 달랐다. 헌관들은 노란색 계통으로 만들었으며, 집사들은 옥색 계통으로 만들었다.

<표 6> 연미마을 이사제 헌관망 및 집사방 명단

구분	初獻官	亞獻官	終獻官	陪獻官	奠祀官	集禮	大祝	贊者	謁者	奉香	奉饌	奠爵	司樽	都豫正
기해53	高在旻	康柄奎	吳誠容		高德鍾	吳守炫	朴鎔炯	高基得	朴正三					
경자60	康柄奎	吳守炫	玄永洙	金辛潤	朴正三	金景澤								
신축61	康柄奎	金辛潤	朴正三		玄永洙	吳在德	金容吳	高榮權	金昌柱					
임인62	金祥洙	吳守炫	玄永洙	朴鎔炯	金辛潤	朴正三	吳在德	金容吳	高燦鍾	金柄郁	高錫普		梁昌起	金昌柱
계묘63	康柄奎	玄永洙	高德鍾	金辛潤	朴鎔炯	高燦鍾	朴基煥	金昌柱	金容吳	高善澤	李圭哲	高正淑	梁昌起	朴正三
갑진64	金祥洙	吳守炫	高德鍾		金景澤	吳在鉉	高燦鍾	金日石	金容吳	朴基贊	高善澤	李圭哲	金錫鎬	朴正三
을사65	高德鍾	高益燦	金辛潤	高燦鍾	朴基煥	康文熙	金日石	朴基贊	金柄郁	徐東林	高守鍾	金錫鎬		
병오66	玄永洙	金辛潤	金景澤	高益燦	金容吳	吳在鉉	高燦鍾	金日石	康文熙	高壽鍾	梁昌起	洪贊杓	金錫鎬	朴基煥
정미67	高德鍾	金景澤	朴基煥	金辛潤	吳在鉉	金容吳	高壽鍾	高善澤	金昌柱	金錫圭	李圭哲	高官鍾	洪贊杓	朴基贊
무신68						金容吳	金日石	金昌柱	朴基贊	李圭哲	金石圭	金錫鎬	洪贊杓	康文熙
기유69	高德鍾	高燦鍾	金容吳		金辛潤	金日石	高壽鍾	金昌柱	李圭錫	金石圭	金錫鎬	梁昌起	高寬鍾	
경술70	金辛潤	朴基煥	金容吳	高燦鍾	金日石	吳在德	朴基贊	李圭哲	徐東林	洪贊杓	梁昌起	李正男	高公秀	高壽鍾
신해71	高德鍾	吳在鉉	高燦鍾	朴基煥	金容吳									
임자72	高德鍾	金容吳	金日石	高燦鍾	金昌柱	洪贊杓	朴基一	文泰炫	金石圭	金柄三	吳秀吉	朴昌幸	高榮燦	
계축73	朴基煥	金容吳	金昌柱		吳在德	梁昌華	高寬鍾	李正男	金柄三	朴昌幸	高榮燦		姜尙斗	
갑인74	高燦鍾	金日石	金昌柱	朴基煥	朴基贊	高公秀	高寬鍾	李正男	金柄三	文泰炫	姜尙斗		金錫昌	高錫榮
을묘75	高德鍾	朴基煥	吳在德	高燦鍾	金日石	文泰炫	洪贊杓	朴基一	高錫普	高正淑	姜尙斗	金柄三	高榮燦	金勝夫
병진76	朴基煥	吳在德	高燦鍾	金昌柱	金日石	高寬鍾	朴基一	高公秀	金柄三	姜尙斗	吳秀吉	高榮燦		
정사77	高德鍾	金日石	金容吳	吳在德	李正男	洪贊杓	金錫昌	金石圭	梁昌起	金勝夫	姜尙斗	金柄三		金錫昌
무오78	高燦鍾	金容吳	李圭哲		徐東林									
기미79	金日石	朴基贊	李圭哲		李圭哲	金錫鎬	洪贊杓	金柄三	金善起					
경신80														
신유81														
임술82														
계해83	高德鍾	金容吳	李圭哲		金麗淳		金錫鎬			梁任成				
갑자84	金景澤	吳在鉉	高燦鍾	李圭哲	金容吳	金勝夫	金善基	金城龍	梁昌起	梁任成				
을축85	高燦鍾	金容吳	李圭哲	金麗淳	金景澤	文泰炫	金善基	金柄三	金城龍	高漢鍾				李正男
병인86	吳在鉉	金容吳	李圭哲		高燦鍾	高祈天	李正男	高宅鍾	高永實	梁昌起	梁任成			
정묘87	金景澤	李圭哲	金容吳		吳在鉉	高祈天	李圭集	李正男	梁昌起	金勝夫	金石圭			高永實
무진88	高燦鍾	李圭哲	金容吳		高祈天	李正男	高永實	金勝夫	高寬鍾	姜尙斗	金城龍			
기사89	高燦鍾	金容吳	高祈天		李圭哲	李圭集	姜尙斗	梁任成	高漢鍾	朴哲洙				
경오90	金麗淳	金容吳	李圭哲		金昌權	李圭集	梁任成	金城龍		朴哲洙				
신미91	金麗淳	金容吳	徐東林			李圭集	梁任成							
임신92	李圭哲	金容吳	李正男			高寬鍾	金城龍							
계유93	高漢鍾	李圭哲	李圭集			金城龍	梁任成							
갑술94	吳在鉉	高燦鍾	李圭哲	李圭集		金勝夫	金善基	金城龍	梁任成	高漢鍾	高榮鳳	朴忠植	宋聖萬	
을라95	高燦鍾	李圭哲	李圭集			高官鍾	金善基	高漢鍾	高漢鳳	林忠植	金泰龍	金良浩		
병자96	李圭哲	金容吳	李圭集			高寬鍾	姜尙斗	高榮鳳	高漢鍾	金良浩	金元丘	宋聖萬	金根燦	

구분	初獻官	亞獻官	終獻官	陪獻官	饗祀官	集禮	大祝	贊者	誦者	奉香	奉饗	饗爵	司饗	都豫差
정축97	吳在鈺	金容昊	李士集	徐東林		洪贊均	高榮鳳		高漢鍾	宋聖萬	李鍾和			梁任成
무인98	高俊鍾	李士哲	高研天	金容珪		高贊鍾	梁任成	金城龍	高榮鳳	金大龍	徐明三			
기미99	高研天	金容昊	徐東林	李士哲	梁汝河	高贊鍾	高榮鳳	金良浩	金城龍	朴忠植	徐明三			
경진00	高俊鍾	徐東林	金容珪	高研天	梁汝河	洪贊均	姜尙斗		梁任成	宋聖萬			金禎中	
신사01	李士集	洪贊均	金勝天	高研天	梁汝河	金善基	高榮鳳	宋成萬	李鍾和	金善德	金泰詒			
임오02	고기철	홍찬표	강상부		부녀회	고한중	고영봉	고범호		안동수	고동수	이창렬		
계미03	전성렬	고관진	강상부	고기철	현양자 양순보	양일성	송성만	이종화	박충식	김태룡				
갑신04	李士集	高贊鍾	姜尙斗		梁汝河 金昌子 宋貞子	洪贊均	高榮鳳	吳昌好	李鍾和			安東秀	金禎中	
을유05	李士哲	徐東林	金性植	金勝天	玄良子 宋貞子	高漢鍾	宋聖萬	吳昌好	高祥植	金泰龍	安東秀	朴忠植		
병술06	李士哲	洪贊均	金勝天	姜尙斗	田德子 宋貞子	金善基	吳昌守	金泰龍	安東秀	金禎中	金善德			
정해07	홍찬표	김승부	강상부	고관진	양여하 송정자	양일성	박충식	서명삼	김태룡	이창열	김희중			

4) 제향비(祭享費)

김선기(남, 63)에 의하면 예전부터 오던 풍속으로 농사짓는 지역이었으므로 현금이 아니라, 쌀로 거출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제향미(祭享米)'라고 불렀던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결산하여 보고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쌀로 거두어 활용하기가 불편해지면서 돈으로 거두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제향비(祭享費)'라고 불렀다. 이 때는 한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불턱을 달리하면 그 불턱에 따라 제향비를 거출하였던 것이다. 총 소요예산을 총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각 반장들은 각 반원들의 댁을 돌아다니면서 2~3일에 걸쳐 받아 제출하였다. 그러나 요사이 불턱마다 3천원씩 거두는데, 반장이 반원 집을 방문하여 동참을 권유하면 거개가 현장에서 참여하게 된다고 한다. 세대가 50~60세대인데, 불턱은 80가호 정도에서 거출하게 되는 것이다. 이 제향비가 이사제를 진행하는 경비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제청을 찾아 회사하는 분들의 회사금도 포함하여 제의 진행에 이용하기도 한다. 이사제를 위해 제향비를 거출하였는데 70호 내외에서 거출하여 활용하고 있다. 불턱수에 따라 제향비를 거출하였다. 같은 집안에서 받을 따로 해 먹는 단위인 것이다.

<표 7> 연미마을 이사제 제향비 내역

구분	수입										지출		이월금
	제향비			회사금	판매 지원비	전년이월			계	제물비	세형 운영비	계	
	세대	호당	금액			원금	이자	소계					
계요83	64								2240	2240		2240	0
갑진84	60	63	3000	153					3153	3050		3050	103
을사85	62	63	3720	-		242			3962	4015		4015	-53
병오86	62	70	4340	-		-			4340	4080		4080	310
정미87	66	70	4620	-		310			4930	4715		4715	215
무신88	66	100	6500	1220		1875			10585	6975		6975	3620
기유89	63	100	6300	-		4700			11000	6815		6815	4185
경술90	64	140	8960	630		5415			15005	8760	330	9090	5915
신해91	62	200	12300			7685			19985	11535		11535	8450
임자92	60	160	9600			8450	2420	10870	20570	9170	300	9470	11100
계축93	59	300	17600			11100	3300	14400	34500	17845	600	18445	16055
갑인94	59	300	17700	2500		14855	2800	17655		14890	400 ⁸⁴⁾	21710	23025
을묘95	59	350	20650			23025	4600	27625		21710		37100	26500
병진96	54	600	32400			26500	5200	31700		37100			27080
정사97													71890
무오98	68	1000	68000	15000	-	47920	9400	57320				93790	76680
기미99	62	1300	80600	-	-	76680	15200	91880		93790		93790	78690
경신00	기록부												
신유01	기록부												
임술02	기록부												
계해03													50000
갑자84	70	2000	138000	25000	-	-	-	-	163000	94950	300 ⁸⁵⁾	94950	68050
을축85	69	2000	138000	35000	-	66050	-	-	239050	135730	-	135730	103330
병인86	67	2000	132000	28500	34000 ⁸⁶⁾	103330	10000	113330	307830	129220		129220	178610
정묘87	70	2000	140000	18000	30000 ⁸⁷⁾	178610	17000	195610	383610	163050		163050	220590
무진88	69	2000	138000	254000	25990 ⁸²⁾	220590	22000		639640	136900	15000 ⁸³⁾	151900	503140
기사89		3000	199999	110000	42900 ⁸⁴⁾	503140	50000			150920	11500 ⁸⁵⁾	170700	734340
경오90		3000	216000 ⁸⁶⁾	38000	-	734340	73000	807340	1081340	70550	43800 ⁸⁷⁾	114350	966990
신미91		1000	61000	74000	-	966990	67800	1034500	1230500	68900	59500 ⁸⁸⁾	128400	1102100
임신92	62 ⁸⁹⁾	3000	186000	100700	-	1142718	127080			78300	95800	174300	1579490
계유93	70	3000	240000	460000	-	1569490	172825 ⁹⁰⁾	1732315	2432315	36240	124540	160740	2281575
갑술94	66	3000	198000	350000	-	2281575	-31 ⁹¹⁾		2889375	77000	218000 ⁹²⁾	295000	2394375
을해95	69	3000	257000	450000	170000 ⁹³⁾	-	-			61800	136200 ⁹⁴⁾	198000	
병자96		3000	302000		200000 ⁹⁵⁾			3000000		223500	206300 ⁹⁶⁾	428800	3494700
정축97		3000	307000	409000	200000	4206021	미포함			288600	223200 ⁹⁷⁾	511800	4487021
무인98		3000	225000	520000	200000	4487021	미포함			458600	139100	597700	4834321
기묘99		3000	239000	310000	150000	4834321		5908363		354600	196900 ⁹⁸⁾	551500	6055363
경진00		3000	215000	430000	150000	6055363		6391574		567845	126600 ⁹⁹⁾	584445	6601119
신사01		3000	219000	530000	150000	6601119		668804		309250	439440 ¹⁰⁰⁾	748690	6694110
임오02		3000	213000	397000	150000	6694110		7191973		378000	375000 ¹⁰¹⁾	753000	7308973
계미03		3000	254000	443000	150000	미포함		미포함		395000	382300	747300	793000
갑신04		3000	173000	540000	150000			7386836		322300	280800 ¹⁰²⁾	602800	7649636
을유05			236000	840000	-	7652724			8728724	450000	437990 ¹⁰³⁾	887990	7840734

구분	수입								지출			이월금	
	계항비			회사금	판매 지원비	전년이월			계	계항비	계		
	세대	호당	금액			원금	이자	소계					
명승06			177,000	677,000	-	8,494,630				377,000	398,000	765,000	8,576,630
명래07			243,000 ⁴¹⁾	970,000	-	8,506,630	272,244	8,778,864	10,031,864	441,700	542,630	984,330	9,047,534

- 18) 명태 100, 돼지사료 300으로 구성되었다.
- 19) 형염(形鹽)의 재료비가 처음으로 계상(計上)된 해이다.
- 20) 전년도 회사물품중 주류 판매대금을 계상하였음
- 21) 전년도 회사물품중 주류 판매대금 10,580에 금년도 주류 판매대금 15,400원이 추가된 것임
- 22) 전년도 회사물품중 주류 판매대금을 계상하였음
- 23) 전선(電線)대가 추가되었다.
- 24) 전년도 회사물품중 주류 판매대금을 계상하였음
- 25) 전선(電線)과 전구(電球)의 대금(代金)가 포함되어 있다.
- 26) 1반 75,000, 2반 77,000, 3반 64,000원이 계상되었다.
- 27) 면장갑 2,000, 볼펜, 창호지, 양면지 1,000, 제관목욕비 18,000, 안주대 15,000, 교통비 1,000, 양념 4,000, 젓가락 2,800원을 합하여 43,800원이 지출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 28) 안주대 36,000, 목욕비 16,000, 창호지 400, 교통비 600, 음료수 5,500원을 합한 59,500원의 금액이 계상되었다.
- 29) 제항비를 납부한 호수로 1반 24, 2반 22, 3반 16호의 도합 62호가 명기되어 있다.
- 30) 이자 171,544원에 만기후이자 1281원이 합산되어 계상되었다.
- 31) 이자에 대한 금액의 계상이 없다.
- 32) 제기를 구입하는데, 76,700원이 지출되었음을 영수증을 첨부하고 있다. 구입한 제기는 향로 1, 솥대 2, 메그릇4, 사각쟁반(편들)2 쟁반대7, 소3, 잔대3로 구성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 33) 제주도 지원금이 회사금에 포함 계상되었다.
- 34) 잡비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추가로 지출된 내역에 부엌 환풍기설치비, 비디오촬영비 50,000원 등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때 비디오촬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35) 제주도 지원금이 회사금에 포함 계상되었다.
- 36) 술안주 45,000, 라면 4박스 26,000, 오복간장풍퐁 5,000, 붓펜싸인펜 5,000, 커피 및 컵 10,000, 목욕비등 31,000, 10,200, 비디오 및 사진촬영 70,000원이 계상되어 기록되어 있다.
- 37) 안주 20,000, 김치 15,000, 화장지 3,800, 택시비 4,400, 식비 73,000, 라면 19,000, 비디오 50,000, 전지약 5,000, 잡비 33,000원이 계상되었다. 그리고 수입항목에 제주도 지원금 150,000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때 관에서의 지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38) 안주료 16,000, 김치 20,000, 볼펜 수첩 등 4,000, 라면 7,000, 돼지고기 24,000,

계묘년(1963)의 기록에 의하면 64세대에서 제향비를 할당하여 부담하였음을 알 수 있도록 하고, 다음해인 갑진년(1964)에는 63세대에서 50원씩 제향비를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3세대의 미수로 60세대에서 삼천원을 확보하였으며 회사품으로 담배와 술을 들어왔음을 적고 있다. 회사품만 들어오던 것이 무신년(1968)부터 500원, 300원정도의 회사금이 답지되기 시작하였다. 신행년의 경우 세대당 거출액이 200원으로 높아지면서 2세대에서 반액인 100원만 납부하여 12,300원을 거출한 경우도 있었다.

특이한 점은 다음해 전사관(奠祀官)을 결산과 동시에 선임하고 결산에 의한 잔금을 전사관을 책임하에 이월(移越)시킴과 동시에 일년(一年)간 3부의 이자로 운영하여야 하는 책무가 따른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결산은 구전사관이 선임 전사관에게 이월 관리토록하고 있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입회인(立會人)을 2~3인을 선임하여 병기 날인토록하고 있다. 그리고 잔금의 삼분(三分)의 이자가 이분(二分)로 바뀌는 시점이 갑인년(1974)이다.

4. 현형 마을제 진행 특징과 고유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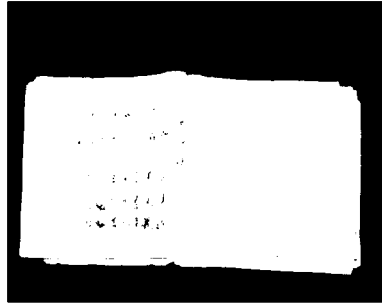
1) 제관

(가) 마을향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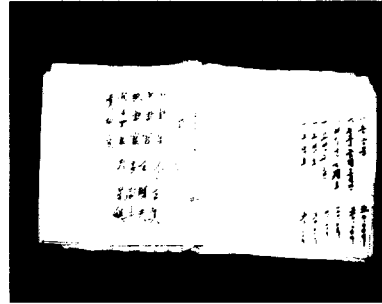
제관의 선정은 마을 총회에서 이루어진다. 일년을 결산하고 다시 한 해

-
- 전기선 45,000, 목욕비 36,000, 기타(장갑 등) 44,900원이 계상되었다.
- 39) 쌀 17,000, 돼지고기 90,000, 김치 48,000, 주료커피설탕 25,500, 새끼, 건전지, 장갑, 붓, 19,100, 목욕비 27,000가 계상되었다.
- 40) 제복보관함 150,000, 병풍 75,000, 시건장치 5,500, 돼지고기 96,000, 조미료5종 8,340, 장갑 3,000, 쌀외 커피외 2종 29,900, 화장지 및 비닐봉투 6,700, 목욕비 30,000가 계상되었다.
- 41) 제관식대 283,000, 목욕비 30,000, 전구및건전지 10,000, 부식비 20,000, 제복시건장치 4,000, 기타안주 28,000원이 계상되었다.
- 42) 식비 88,000, 안주 69,000, 기타잡비 48,800, 마을회관정리부녀회식비 30,000원이 계상되었다.
- 43) 보일러 기름 160,000, 식비 및 주류안주 206,590, 기타잡비 71,400원이 계상되었다.
- 44) 1반 126,000, 2반 66,000, 3반 51,000이 거출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를 시작하면서 마을의 대소사를 평가하고 새롭게 계획을 세우는 자리이다. 2008년 무자년(戊子年) 올해의 경우 1월 18일에 연미마을 총회가 마을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이사제(里社祭) 봉행을 위한 제관의 선정도 아울러 이루어졌다.



<그림 1> 무자년이사제 집사방



<그림 2> 무자년이사제 헌관망

<표 8> 무자년(2008년) 이사제 헌관망 및 집사방

都豫差	司樽	奠爵	奉香	奉爐	贊者	謁者	大祝	集禮	執事榜	奠祀官	預差獻官	終獻官	亞獻官	初獻官	獻官望	구분
		高祥植	文宗錫	金景皓	徐明三	金泰龍	高榮鳳	高漢鍾		梁汝河	高寬鎭	姜尙斗	金勝夫	李圭集		성명
															비고	

마을 동회장과 노인회장을 중심으로 이사제의 제관을 주로 선정하게 되는데, 다른 해와는 달리 예정된 전 제관 14인을 전부 확보 선정하지는 못한 한 해가 되고 말았다. 사준(司樽)과 도예차(都豫差)의 직분을 맡은 제관을 선정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예차헌관(預差獻官)을 선정하여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라도 제관을 완비하여 제의 봉행에 임하고자 하였음을 살필 수는 있다.

(나) 선정제관

마을민을 대표해서 제의를 봉행하는 제관들은 헌관(獻官)과 집사(執事)로 크게 나뉘어 소집되는데, 제관기에는 헌관망(獻官望)과 집사망(執事榜)으로 구분하여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상을 당하여 복(服)을 입은 사람이거나, 상처(喪妻)한 사람, 불구(不具)인 사람은 피하여 제관을 선정하는 편이었다. 무자(戊子)년 올해의 헌관과 집사자는 다음과 같다.

초헌관(初獻官)은 이사제를 총괄해서 준비하여 집행해야하는 의무를 지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제관으로 제청에서의 금기간중 제관들 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게서도 절을 받는 등 극도의 존중을 받는다. 이규집(李圭集, 남, 71)은 1반에 거주하는 진성이씨의 자손으로, 이사제에 초행한 것은 정모년(1987) 대축(大祝)직이었으므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 이사제 참례가 좀 늦은 편이었다. 특히 87년부터 97년까지 마을회장을 역임⁴⁵⁾하면서 마을에 봉사하기도 하였다.

아헌관(亞獻官) 김승부(金勝夫, 남, 68) 1반에 거주하는 김해김씨의 자손으로, 이사제에 초행한 것은 을묘년(1975) 사준(司樽)직이었으므로 이사제 참례에 오랜 경험을 가진 분이다. 특히 91년부터 93년까지 통장, 92년부터 94년까지 새마을지도자 일을 담당⁴⁶⁾하였다.

종헌관(終獻官) 강상두(姜尙斗, 남, 68) 1반에 거주하는 신산강씨의 자손으로, 이사제에 초행한 것은 계축년(1973) 사준(司樽)직이었으므로 이사제 참례에 오랜 경험을 가진 분이다.

예차헌관(預差獻官) 고관진(高寬鎭, 남, 68) 1반에 거주하는 제주고씨의 자손으로, 이사제에 초행한 것은 정미년(1967) 전작(奠爵)직이었으므로 다른 사람에 비해 이사제 참례에 오랜 경험을 가진 분이다.

전사관(典祀官)은 제의 진행을 위해 연미마을에서는 전사관(典祀官)을 1년전에 선출하게 된다. 그러면 전사관택에서는 정성으로 이사제 봉행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전사관을 맡은 양여하(梁汝河, 여, 81)는

45) 오라동향토지편찬위원회, 『오라동향토지』, 2003, 오라동주민자치위원회. 123쪽

46) 위의 책. 125쪽

1반에 거주하는 제주양씨의 자손으로, 이사제에 초행한 것은 기묘년(1999)이었으므로 이사제 참례에 몇 번의 경험을 가진 분이다.

전사관이 준비하는 제물을 살펴보면 희생으로 돼지 전마리를 올린다. 메는 도량서직으로 4메를 쳐(찌서) 올리는데, 지금은 곤쌀, 피쌀, 차조, 메조를 재료로 메를 만든다. 과일은 5가지를 쓰는데, 대추, 밤, 꼬감, 비자, 유자가 그것이다. 포육(脯肉)은 쇠고기를 사용하는데, 소금간을 하고 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여 이용한다. 다음은 어해, 어염으로 생선을 활용하는데 소금간을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여 이용한다. 소금간을 하지 않은 것은 비늘도 전혀 손을 대지 않는다. 미나리, 무수채를 한다. 모혈(毛血)은 희생시킨 돼지의 피와 털을 접시에 담아 제에 사용하나 제단(祭壇) 위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단하(壇下)에 두어 제를 올리는 것이다. 제주(祭酒)로는 청주(淸酒)를 사용하였으나 담아서 이용하여야 하는 것이 번거로우므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을 피하고, 지금은 정종을 사서 이용한다. 청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차조를 갈아 오메기 떡을 만들고 그것을 물에 삶아 식힌 다음, 누룩과 버물려 항에 넣어둔다. 20여일이 지나면 맑은 옷물은 떠서 청주(淸酒)를 만들어 제주(祭酒)로 사용하였으며, 아래 가리얏은 아쟁이와 남은 것은 탁베기로 걸러, 제관들이나 제청을 찾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용하였던 것이다.

집례(集禮) 고한중(高漢鍾, 남, 53)에 의하면 집례는 이사제 봉행을 위해 제단에 가면 우선 제물을 차려 제단에 올리는 일을 집사들과 함께 하게 된다. 그리고 제의가 시작되면 홀기(笏記)를 차례대로 불러 전체적으로 제의가 봉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제청(祭廳)에서는 집사들을 독려하여 오는 손님을 맞이한다거나, 제청내내에서 정성을 드리는 제관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일을 담당한다. 또한 제물을 준비하는 전사관을 도와 제물의 출납도 관여하며 제청에서 행해지는 제물진설의 과정을 책임지고 거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제항비 및 제청을 찾아 제의 봉행에 회사하는 회사금품의 출납하는 일을 담당하여 나중의 결산보고를 하는 책무도 담당하게 된다. 고한중은 1반에 거주하는 제주고씨의 자손으

로, 이사제에 초행한 것은 을축년(1986) 봉향(奉香)직이었으므로 참례의 경험이 여러 번 있는 제관이다. 특히 97년부터 02년까지 통장, 98년부터 02년까지 새마을지도자의 직을 맡아⁴⁷⁾ 마을에 봉사하기도 하였다.



<그림 3> 무자(戊子, 2008년) 이사제 제관들, 전사관과 예차헌관이 보이지 않음

대축(大祝) 고영봉(高榮鳳, 남, 53)님에 의하면 이사지신(里社之神)은 마을을 관장하는 신(神)이라는 의미이나 토지신(土地神)이라는 관념이 더 강한 편이다. 마을민의 건강과 안전하게 하게할 뿐만 아니라 마을민 모두가 복을 많이 받아서 재물이 불어날 수 있도록 기원하는 것이다. 제청에서는 집례를 보좌(補佐)하고, 삼헌관을 보필하면서 마을제의 무사봉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물 진설을 확인하고 나면 곧바로 그 자리에서 도복을 갖추어 입은 채로 초헌관 및 헌관들 앞에서 지방(紙榜)과 축문(祝文)을 작성하여 제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고영봉은 3반에 거주

47) 위의 책, 124쪽

하는 제주고씨의 자손으로, 이사제에 초행한 것은 갑술년(1994) 봉향(奉香) 직이었으므로, 몇 번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알자(謁者) 김태룡(金泰龍, 남, 45)은 2반에 거주하는 사평출신의 광산김씨의 자손으로, 이사제에 초행한 것은 신사년(2001) 전작(奠爵)직이었으므로 이번이 두 번째 참례인 것이다. 특히 95년부터 02년까지 마을 청년회장을 역임하였으며 이어 02년부터 새마을지도자, 통장의 일을 담당⁴⁸⁾하였다.

찬자(贊者) 서명삼(徐明三, 남, 46)은 3반에 거주하는 연미마을 출신으로 파주서씨의 자손이다. 초행하는 것은 무인년(1998) 이사제 때 봉로의 직분을 맡은 것이었다.

봉로(奉爐) 강경호(康景皓, 남, 52)는 2반에 거주하는 성산출신의 신산강씨의 자손으로, 이주해 온 것은 7~8년정도 되었다. 이번이 이사제에 초행하는 것이다.

봉향(奉香) 문종석(文宗錫, 남, 47)은 1반에 거주하는 파주문씨의 자손으로, 이번이 이사제에 초행하는 것이다.

전작(奠爵) 고상식(高祥植, 남, 51)은 3반에 거주하는 한림출신의 제주고씨의 자손으로, 연미마을로 이주해 온 것은 40여 년 전의 일이다. 이번이 이사제에 초행(初行)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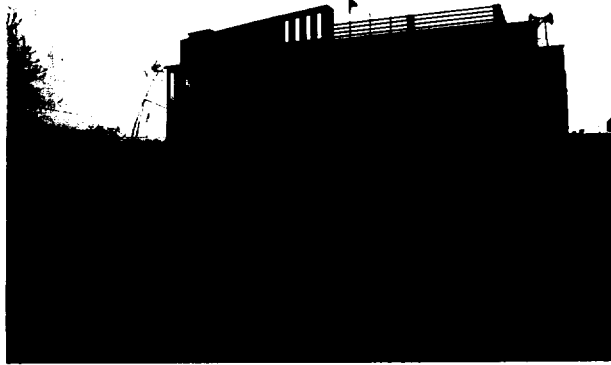
사준(司罈) 도예차(都豫差)의 제관은 선정되지 않았다.

2) 입제, 제청

(가) 제청

제관들이 제청으로 입제하기 할 마을회관내 경로당(敬老堂)을 입제 전에 부녀회에서 나와 청소를 하게 된다. 이 때 부녀회원들은 경로당내 구석 구석의 청소는 물론 그동안 마을 어른들이 이용하였던 이부자리와 베개 등도 점검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 때 난방(暖房)과 온수(溫水)의 공급을 위한 보일러 시설 상하수도시설, 제물을 손질하고 장만할 뿐만 아니라 제관, 참례자들에게 대접할 음식을 위한 취사·가스

48) 위의 책, 124~5쪽



<그림 4> 제청(마을회관내)

시설 등도 함께
 점검하는 것이
 다. 그리고 마을
 회관 주변을 정
 돈 청소함으로써
 청결함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한다. 마을회장
 은 부녀회원의
 도움으로 제관
 들이 착용할 제
 복을 확인하고

세탁소에 맡겨 일부 제복은 세탁을 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마을회관 입구에 '삿'을 매는 일이다. 3일간의 입제 금기 기간중의 합숙을 위한 공간이면서, 제의 봉행을 위한 모든 준비가 이루어지는 곳이기때 부정한 것과의 접촉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락되지 않는 것이다. 부정한 사람의 출입 제한은 물론 입제한 제관의 출입도 제한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삿'은 깨끗한 새를 이용해 왼쪽으로 만든 '노'를 가리킨다. 일상으로 사용하는 노가 오른쪽으로 끈 것이라고 하면, 일상으로 사용하지 않는 특별한 것인 왼쪽으로 끈 노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것을 마을회관 입구 기중에 세운 대나무에 묶어 두는 것이다. 물론 제의 봉행을 위해 제관들이 제단으로 이동하게 되면 제청에 남아있는 마을 사람들이 이를 철거하게 된다.

제청인 마을회관에 보관된 이사제 봉행과 관련된 자료는 제복과 홀, 지방틀과 폭판, 향로, 향합, 촛대, 그리고 각종 제물을 담아올렸던 제기를 들 수 있으며, 병풍과 젓자리가 완비되어 준비되어 있었다. 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복(祭服)은 유건, 도포, 행경으로 구성되었으며, 술띠로 묶을 수 있도록

하였다. 유건(儒巾)은 28.5cm×25cm×15.5cm이다. 도포(道袍)는 2가지 색으로 현관의 것은 황색으로, 집사들은 옥색의 것으로 만들어졌다. 현관의 제복인 도포는 173cm×117cm×101cm의 크기를 보인다. 행경(行徑)은 20cm×35.5cm의 크기를 보인다. 술띠는 직경 0.1cm에 길이 240cm의 크기를 보인다. 홀(笏)은 폭 3.7cm에 길이 28.7cm에 두께 1cm의 것이 이용되었다.

지방틀은 23.7cm×8cm×1cm의 크기를 보인다. 축판은 19.8cm×27.5cm×1cm의 크기를 보인다. 향로(香爐)는 높이 14cm에 직경 14cm의 스텐레스 제품이 이용되고 있다. 향합(香盒)은 직경 7.7cm의 크기의 것으로 높이 2.3cm의 크기로 뚜껑이 따로 있다. 촛대는 촛물받이의 직경 7cm의 것이 높이 20.6cm에 설치되었으며, 초꽃이는 4.5cm의 것이 이용되었다. 편대<餅臺>는 24.9cm×22cm크기의 사각에 6.8cm 높이의 받침대가 붙은 것이 쓰였으며, 과일 쟁반은 직경 18.4cm크기에 높이 7cm의 받침이 붙었다. 잔대는 직경 11cm의 크기에 높이 6cm의 받침이 붙은 것이다. 거기에 사용하는 잔은 직경 7cm에 높이 3.7cm의 것이 이용되었다. 매을 담아 올렸던 메기에는 직경 11cm에 높이 6cm의 것이 이용되었다. 도량서직(稻梁黍稷)의 4베를 찌기 위해 찜통을 이용하는데, 양은 제품을 구입해 사용하고 있었다. 크기는 직경 39cm, 높이 18.5cm정도의 것을 사용하고 있다. 밥사발은 스텐레스 제품을 이용하고 있는데, 모혈(毛血)은 밤는 접시는 플라스틱 제품으로 직경 13.3cm 높이 2.8cm의 것이 이용되었다.

폐백을 담은 차룻은 플라스틱 바구니에 대나무로 발이 세워 만들어 사용한다. 구덕은 52×41.5×10.5cm의 크기의 것에 길이 87cm 폭 1cm의 발을 끼워 붙여 이용하였다. 그밖에 병풍(屏風)은 37.7cm×139.5cm의 것이 8폭으로 구성된 것이 쓰였으며, 젓자리는 91.7cm×190cm의 것이 이용되었다.

(나) 입제 금기

① 입제 첫날

· 상견례

제관으로 선정된 분들은 선정 당시부터 집안에서 몸정성을 하며 이사제

를 준비하게 된다. 그러다가 제의 봉행 3일전 오후가 되면 제청으로 정해진 마을회관으로 나와 근신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입제 첫날은 점심을 자기 집에서 먹고 제청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날은 우선 제의에서 자기의 직분(職分)을 확인하고 오래동안 만나지 못한 제관들과 만나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인사를 나누는 시간으로 보내게 되는 것이다. 헌관들같이 은퇴하신 제관들 중심으로 모이게 마련이며, 젊은 집사들의 경우에는 직장 일 때문에 저녁이 지난 시간이 되어야 나오게 되는 것이다. 우선 나온 헌관들은 제의와 관련해 내려오는 자료들을 확인하면서 해마다 기록한 제관들, 물종, 회사금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저녁을 먹고 나서 제청을 찾은 마을 사람들의 인사를 받기도 하고, 환담을 나누기도 하였다. 올해 새로 맡은 직분에 대해 집사자들은 전임자나 잘 아는 분들에게 이해를 구하면서 초저녁 시간을 바쁘게 보내는 것이다. 제청을 찾는 마을 사람들에게는 돼지고기 안주에 술을 대접하였다. 그러므로 조금 늦은 시간까지 전사관 양여하님께서 제청에 머물렀다. 헌관들께서는 제청에서 주무시지 않으려는 듯 늦은 시각에 모두 자리를 비우고 젊은 집사들과 마을 분들만이 제청을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는 한가한 시간이 되면 옷을 놀면서, 화투를 치면서 집사들의 무료함을 함께 달래주기도 하였다. 올해의 경우는 정월 초하루에 제의가 봉행되므로 새해 인사는 제관들끼리 제일 먼저 나누게 되었다.

②입제 이튿날

새벽녘까지 밤을 보낸 마을분들과 젊은 집사자들은 아침 일찍 목욕탕을 찾기 위해 제청을 나가고 아침 일찍 일어난 집례께서는 제청내의 정리 정돈은 물론 마을회관 바깥까지 청소하고 일부 마른 쓰레기는 한곳으로 모아 태우면서 이튿날의 여명이 밝아왔던 것이다.

이 때 세면을 하고 한복으로 의관을 정제한 초헌관이 일찍 제청으로 나왔고 그 후 다른 헌관들도 나와 제청에서 대기하게 되었다. 아침 식사 때

는 전사관이 제청에 나오지 않아 배달이 가능한 음식점에 식사를 주문하여 헌관들의 식사에 충당하였다.

중식 시간이 되어도 전사관은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인지 중식은 중국 집에서 짜장면을 불러 해결할 수 밖에 없었다.

· 제단 청소

제의 봉행 전에 제단을 정비하여야 하는데, 주로 청년회원들이 오후 2시 경에 제청인 마을회관으로 나와 수고로움을 담당해 주었다. 제단 주변의 청소는 물론 천막의 설치, 전기의 가설 등이 이 때 이루어졌으며, 저녁에 희생을 운반하는 법, 추위에 대비한 '지들것'의 준비 등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논도 이 때 이루어지는 편이다. 제단을 청소할 때는 향을 닦인 물을 가져와 마지막으로 씻어내는 것으로 부정을 막았다.

· 폐백상자

마을 사람 여러 사람들이 제청을 차는 날이어서 저녁식사는 분주하게 치루어졌다. 부녀회 회원님들 여러명이 나와서 저녁상 차림을 도왔다. 그리고 참관하는 마을 사람들은 식사 후 제관들과 웃놀이를 하면서 제청에서의 수고로움을 달래주었다. 이 때 마을회장님께서 폐백(幣帛)을 진설할 때 사용하는 '폐백 상자'를 만들었다. 상자는 붉은 색 장방형 플라스틱 그릇으로 이용하여 대나무로 발을 꽂아 세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것은 제단에서 희생을 진설하고 그 위쪽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발의 높이가 80cm정도에 이르는 것이었다.

· 제물확인(祭物確認) 및 축·지방 작성

저녁 식사를 마치고 텔레비전을 통해 9시 뉴스를 시청을 마친 제관들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제관들이 모두 제복으로 갈아입기 시작했다. 조금 있을 제물 이동을 대비해서 진설에 참가하는 집사들에게 진설할 때에 제물의 위치를 확인시키고 준비한 제물에 빠진 것은 없는지, 그리고 진설에 사용할 제기(祭器)의 준비를 확인하는 '제물확인'을 위해서였다.

제관들이 제복으로 갈아입은 사이 마을회장과 참례자들이 도와 병풍을 치고 젓자리를 깔고 그 위에 상 하나를 준비했다. 전사관(奠祀官)은 준비

한 제물(祭物)과 제주(祭酒). 제기(祭器)를 하나 하나씩 상이 설치된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준비해 준다.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집례(集禮)는 하나 하나 불종기를 부르고 집사들은 상(床)에 진설하게 되는 것이다.

<표 9> 이사제물종기

毛	祭	香	香	形	幣	栗	大	乾	榘	唐	芹	菁	魚	魚	牛	牛	豚	稷	黍	梁	稻	里社祭物種記
血	酒	木	燭	鹽	帛		棗	柿	子	橘	苳	苳	鱸	鱸	脯	脯	腥					

제일 먼저 가장 큰 제물인 돈성(豚腥)을 상의 중앙에 진설하는데, 머리를 오른쪽으로 가도록 한다. 이 때 높은 받침이 있는 제기(祭器) 대신 밀감 콘테이너를 사용한다. 그리고 돈성 뒤로 도량서직(稻梁黍稷)의 4매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릇을 자리잡는다. 그리고 왼쪽에 사변(四邊)으로 우포, 어소, 당굴, 형염을 오른쪽에 사두(四豆)로 우해, 어해, 청저, 근저를 진설한다. 그리고 왼쪽 앞쪽으로 비자와 꼬감, 대추, 밤을 담은 제기를 진설하고 그 앞쪽 양옆에 향촉을 세웠다. 상 아래에는 모혈(毛血)을 놓고 제상 앞의 향상(香床)에는 향로와 잔 3개를 놓았으며, 준비한 제주는 향상 옆에 두었다. 이렇게 제물을 확인한 제관들은 전부 제상 주위로 모여 손을 앞으로 모으고 자리하였다. 이 때 대축이 준비한 종이를 가져나와 삼헌관 뿐만 아니라 모든 제관, 참례자 앞에서 축문을 작성하여 축판에 붙였다. 그리고 나서 지방을 작성하고 그 지방을 지방틀에 붙여 상에 올림으로서 제물확인과정·지방의 작성이 모두 끝난 것이다.

· 예행연습(豫行演習)

진설과 축·지방의 작성을 확인한 제관들은 일제히 예행연습에 임하였다.

집례는 홀기문을 들고 제단에서 하는 것처럼 하나 위치를 설명하면서 집사들에게 위치를 확인시켰다. 그리고 나서 전부 제단 밖에 모이듯이 물러나도록 하면서 실질적인 예행 연습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처음 시행되는 예행 연습은 설명이 길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홀(笏)을 어느 곳에 꽂았다고 잡아야 하는지, 술잔을 누가 들고 술병을 어느 손으로 잡고 어떻게 놓혀 부여야만 넘치지 않는다는 등 구체적인 행동까지의 요령을 설명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행연습은 40분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던 것이다.

3) 제의(祭儀)

(가) 제의준비

예행연습을 마치고 나면 약간의 휴식의 시간을 갖는다. 그 휴식 마저 제의 진행에 필요한 경험들을 교환하느라 커피 한잔을 마실 시간이 부족할 정도인 것이다. 이렇게 잠간의 휴식을 보내고 나면 현관들은 정자관(程子冠)을 벗고 환담을 하면서 한해를 시작하는 시점체서 치루어지는 이사제의 무사봉행을 마음속으로 기원하는 것이다. 그러는 동안 전사관은 베를 치기에 시간이 바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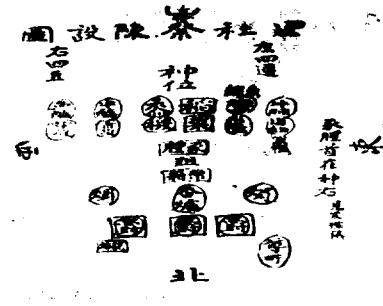
휴식을 취하던 현관들은 제단으로 이동할 11시 30분경에 이르면 향목(香木)을 끓여 식힌 물에 세면(洗面), 세수(洗手)를 하고 제복(祭服)을 다시 한번 어루만지면서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한다.

(나) 제물 이동

제의 봉행을 위해 우선 제물을 이동하여야 했는데, 제물의 이동만은 순수하게 제관들만이 담당하는 몫이었다. 혹 있을 수 있는 부정을 막기 위한 것이었으나 집사들의 수고로움은 그만큼 더해지는 편이었다. 이를 위해 집사들은 10시 40분경부터 제물을 옮기기 시작했다. 조금전 진설을 하면서 익혔던 제물의 정위치를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 이동하는 제물과 제기를 구분하여 옮기고 있었다.



<그림 5> 제물진설



<그림 6> 이사제 진설도

사용하는 제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생선은 길이 32cm에 폭 8cm 정도의 것이 쓰였다. 쇠고기는 22cm×11cm로 잘라 이용하였다. 유자(柚子)는 직경이 큰 쪽이 12.5cm 작은 쪽이 10.5cm 내외의 것이 이용되었다. 꽃감은 직경 6cm 높이 1.5cm 크기의 것 10개가 쓰였다. 밤은 4.5cm에서 3cm 크기의 것 7개가 쓰였으며, 대추는 길이 4cm, 직경 2cm 내외의 것 25개 정도가 쓰였다. 비자(榧子)는 길이 1cm 내외의 피를 벗기지 않은 것이 20개정도 쓰였다. 폐백에는 종이를 이용하는데 61.3cm×30cm크기의 한지 10장을 포갠 채로 접어서 이용하였다.

진설을 마치면 헌관들이 보는 앞에서 대축이 지방과 축문을 작성한다. 우선 지방을 작성하는데, 한지로 폭 6cm 길이 20cm 내외의 크기로 오려서 붓글씨로 '이사지신위(里社之神位)'라고 써서 사용하였다. 축문은 한지로 21.5cm×30cm의 크기로 잘라 그 위에 작성하였다.

우선 소량의 제물을 담은 구덕을 잡은 집사부터 제단으로 나가기 시작한다. 그리고 무겁고 큰 희생(犧牲)을 제관 3명이 옮기기 시작한다. 밖에서는 리어카를 이용하여 제단까지 옮기고 제단에서 가까운 곳에서 다시 손으로 옮기는 것이다.

(다) 집사 예행연습

제물 이동은 3일간의 제청 입제로 근신하면서 몸 정성을 하여왔던 집사



<그림 7> 집사에행연습

(執事)들이 담당한다. 혹 정성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제물 이동을 도와주려다가 제물이 부정 혹은 몸이 비린 사람에게 노출되게 되면, 이사제 봉행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제관은 아니지만 3일 간의 제관들의 제청 입제기간내 제청을 출입하면서 몸 정성을 하였던 청년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제물 이동을 도와주고 있다.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진행되었던 제물 이동이 끝나면 집사들은 제단에 제물을 진설을 하게 된다. 이 때 이사제(里社祭)에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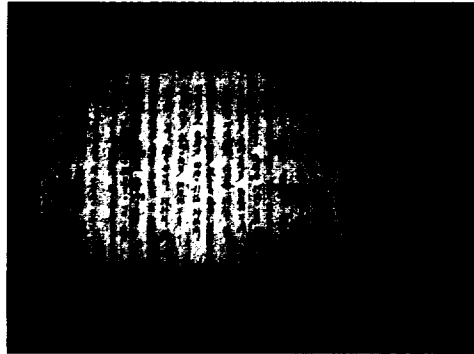
한 경험이 많은 마을 분들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현·전직 마을 동회장, 전 청년회장(靑年會長), 전 초헌관(初獻官) 등이 진설을 돕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초행으로 참가하는 제관들은 물론 집사들도 제물 진설에 관해 의미와 위치 등을 하나하나씩 익히게 되는 것이다.

제단에 제물 진설이 끝나면 제물을 지키는 일에 열중하게 된다. 혹 밤 고양이나 쥐 등에게 제물을 훼손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엄청 추운 한겨울이지만 경험 있는 집사들과 참관하는 마을내 선배들이 중심이 되어 제단을 중심으로 자리하면서 떠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 때 마을 선배들을 중심으로 집사들의 집중적인 현장 예행이 시작되는 것이다. 관세(盥洗, 신위전(神位前), 망료위(望燎位), 준소의 위치는 물론, 헌관들의 배위(拜位) 등등을 확인하고 말을 하지 않은 제의 진행의 특성상 그곳에서의 행해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익히게 되는 것이다.

(라) 제의봉행

제의 진행은 찬자(贊者)와 집례(集禮) 2인의 배례(拜禮)로 시작된다. 시간이 자정에 가까워지면 제관들은 추위를 달래던 모닥불가에서 나와 의관을 우선 손질한다. 그리고 제단 가까이 모이게 된다. 제관 이외에 참례한

마을 사람들과 청년회원들, 전직 이장님들도 인성을 낮추고 복색을 정돈하면서 제단 쪽으로 모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엄숙한 분위기에서 제일(祭日)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때 제관들에게 “이제부터 제의를 시작하겠습니다.”고 알리고 찬자와 집례가 우선 제단 앞 배위(拜位)로 나아가 4배를 올리는 것이다. 이 때 다른 제관들은 제단 담 안으로 들어와 서게 되며, 참례자들도 제관 뒤로 들어와 손을 앞쪽으로 모으면서 제의 봉행에 참가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 8> 훌기문

배례(拜禮)를 마친 찬자와 집례는 제집사배위(諸執事拜位)에서 물러나 관세위(盥洗位) 앞으로 나아가 손을 씻고, 정해진 자리로 가서 위치하게 된다. 집례는 신위를 모신 제단에서 가장 가까운 오른쪽에 위치한다. 그리고 집례보다 아래쪽으로 찬자가 자리하게 되는 것이다. 통상

집례는 훌기(笏記)의 글자들을 읽어야 하므로 등불이 있는 쪽에 위치하며, 찬자는 헌관들의 배례시 ‘흥(興)’과 ‘배(拜)’를 불러주어야 하므로 담 쪽으로 가까운 곳에 자리하는 편이다. 이렇게 자리하고 나면 집례가 부르는 훌기(笏記)에 따라 연미마을 이사제(里社祭)는 시작되는 것이다. 연미 마을에 전해오는 훌기문의 크기는 cm × cm로 한지(韓紙)를 잘라 붙이고, 그 위에 붓글씨로 기록한 것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笏記

謁者引祝及諸執事入就拜位, 四拜, 祝以下皆四拜, 鞠躬拜, 興, 平身, 詣盥洗位, 西向立, 盥手, 各就位, 謁者引獻官入就拜位, 謁者進, 初獻官之左白, 有司謹具請行事. 四拜, 獻官及諸位者皆四拜, 鞠躬拜, 興, 平身, 行奠幣禮, 謁者

引初獻官, 詣盥洗位, 西向立, 搯笏, 盥手, 執笏, 引詣里社神位前, 南向立, 跪, 搯笏, 三上香, 獻幣, 執笏, 俯伏興, 平身, 引降復位, 行初獻禮, 謁者引初獻官, 詣樽所, 西向立, 執樽者 舉冪酌酒, 引詣神位前, 南向立, 跪, 搯笏, 獻爵, 俯伏興, 小退跪, 讀祝, 執笏, 俯伏興, 平身, 引降復位, 行亞獻禮, 謁者引亞獻官, 詣盥洗位, 西向立, 搯笏, 盥手, 執笏, 引詣樽所, 西向立, 執樽者酌酒, 引詣神位前, 南向立, 跪, 搯笏, 獻爵, 執笏, 俯伏興, 平身, 引降復位, 行終獻禮, 謁者引終獻官, 詣盥洗位, 西向立, 搯笏, 盥手, 執笏, 引詣樽所, 西向立, 執樽者酌酒, 引詣神位前, 南向立, 跪, 搯笏, 獻爵, 執笏, 俯伏興, 平身, 引降復位, 四拜, 獻官皆四拜, 鞠躬拜, 興, 平身, 飲福受俎, 謁者引初獻官, 詣飲福位, 東向立, 跪, 搯笏, (執事者, 以爵授獻官) 受爵受俎, 飲卒爵, (以授執事者, 執事者, 受虛爵, 執事者, 以俎授獻官, 獻官受俎, 以授執事者, 執事者, 受虛俎), 執笏, 俯伏興, 平身, 引降復位, (四拜, 獻官及在位者皆四拜, 鞠躬拜, 興, 平身), 撤籩豆, 四拜, 獻官及在位者, 皆四拜, 鞠躬拜, 興, 平身 望燎, 謁者引初獻官, 詣望燎位, 南向立, 焚幣, (望燎, 行參拜禮, 四拜, 鞠躬拜, 興, 平身), 蓋燎, 謁者進初獻官之左, 白, 禮畢(出), 獻官以下皆出, 謁者引, 祝及諸執事俱伏拜位, 祝以下皆四拜, 鞠躬拜, 興, 平身, 禮畢, 祝以下次出

홀기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연미마을 이사제는 신을 모셔와서 대접하고 돌려보내는 과정으로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된다.

우선 집례와 대축이 제 위치를 잡고 홀기를 부르면서 시작되는 제의는 대축 이하 제집사들을 제장(祭場)으로 나오게 하여 제의 진행을 돕도록 하는데서 시작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배례를 시키고 손을 씻은 다음 제 위치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면 제의 진행준비는 전부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제의 진행 준비가 되었음을 알자가 초헌관에게 알려면서 제의가 진행된다.

제의 시작은 제장(祭場)에 이사지신(里社之神)을 모시는 청신(請神)을 위해 진설한 제단에 황촉(黃燭)을 밝히고 헌관들의 배례로부터 시작된다. 홀기에 따라 헌관들은 배위로 나와서 배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장의 제 위

치에 깔려 있는 젓자리 위에 서서 사배례를 하는 것이다. 이 때 찬자의 흥과 배가 따르는 것이다. 배례를 마치면 헌관들은 제 자리에 서 있게 된다.

이렇게 신을 모신 제장(祭場)에서 이루어지는 의례로는 전폐(奠幣)와 헌작(獻爵), 음복(飲福), 철변두, 망료로 구성된다.

· 전폐례(奠幣禮)

우선 알자(謁者)로 하여금 초헌관을 모셔서 관세위로 모시도록 한다. 그곳에서 손을 씻고 홀을 잡은 상태로 신위 앞으로 나오도록 모신다. 신위 앞으로 모셔진 초헌관은 자리에 꿇어 앉게 된다. 그러면 봉향이 가져오는 향을 봉로가 가져오는 향로에 넣고 우선 분향을 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폐백을 신에게 올리고 제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다.

· 헌작례(獻爵禮)

신에게 올리는 잔은 삼잔으로,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의 헌작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초헌관을 알자는 제주를 준비하고 있는 준소로 모시고 간다. 그곳에서 집사(전작과 사준)가 잔에 제주 채우는 것을 확인하고 신위를 모신 제단 앞으로 나오게 된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 엎드려 집사가 가져오는 술잔을 제단에 모신 신에게 올리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조금 물러나 엎드린다. 이 때 모든 제관과 집사들도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 이렇게 준비가 되면 대축의 직분을 맡은 집사가 제단에 올렸던 축문을 붙인 축판을 내려 고축(告祝)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축을 고하고 나면 엎드렸던 초헌관과 집사들은 몸이 세우고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면 아헌관이 나와 잔을 올리는 순서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우선 아헌관은 알자의 도움을 받아 관세위 앞으로 나아간다. 그곳에서 손을 씻고 나서 준소로 나오게 된다. 그곳에서 집사들이 제주를 잔에 채우는 것을 확인하고 홀을 움켜잡은 채 신위를 모신 제단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 그리고 나서 제주를 채운 잔을 올리는 집사의 도움을 받아 제주를 제단위 신에게 올리는 것이다. 제주(祭酒)를 올린 다음 아헌관은 홀을 두손으로 잡은 다음 제자리로 돌아와서 선다. 이렇고 나면 헌작의 마지막 순서로 종헌관이 나와 제주를 올리는 차례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차

례는 아헌관과 동일하다. 이렇게 삼잔을 드리고 나면 헌관들은 제자리에서 배례를 올린다 이 때도 물론 4배를 올리는 것이다.

· 음복례(飲福禮)

잔을 올리고 나서 초헌관을 다시 신위를 모신 제단 앞으로 모시는데, 이때는 음복을 하는 자리로 나와 무릎을 꿇고 앉게 된다. 그러면 집사들은 신에게 올렸던 초헌관의 술잔과 우포를 내려와 초헌관에 건넨다. 초헌관은 술과 안주를 조금씩 먹고(사실은 입에 대고는 먹고 마시는 시늉만 한다.) 잔과 안주를 집사자에게 돌려주는데, 집사들은 그것을 제단 밑에 둔다. 그리고 나서 초헌관은 홀을 움켜잡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음복례를 마치고 나면 헌관들은 제자리에서 4배를 하는 배례를 치르게 되는 것이다.

· 철변두(撤饌豆)

음복례에 이어지는 순서가 사변(四邊)과 사두(四豆)로 올렸던 제기를 철거하는 순서이다. 그러나 실재에서는 철상시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하여 제기의 위치를 조금씩 옮겨서 변과 두의 제기를 옮기는 순서를 대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철변두(撤饌豆)의 순서를 마치고 나면 헌관들은 제자리에서 4배를 하는 배례의 순서를 갖는다.

· 망료위(望燎位)

변과 두의 제기를 옮기는 순서를 마치고 나면 망료를 순서를 갖게 된다. 초헌관은 알자의 도움을 받아 망료를 위해 준비한 곳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때면 제단에 올린 폐백과 지전, 축문을 구덕에 담아 집사가 따르게 된다. 집사는 초헌관이 보는 앞에서 내어온 폐백과 축문을 불구덩이에 넣고 불을 붙여 태우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분폐를 하는 동안 참례자들이 신위에게 배례를 하는 순서를 갖게 된다. 참례자도 제관들과 같이 4배를 올리게 되는데, 이 때 찬자의 흥과 배의 복창에 따르게 되는 것이다.

참례자들의 배례를 마치게 되면 축문과 폐백을 사르는 일도 거의 마쳐지게 된다. 그러면 열려졌었던 불구덩이의 두경을 닫아 두고 초헌관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서게 된다.

이렇게 망료의 순서를 마치고 돌아와 선 초헌관과 참례자들의 배례를 마치고 나면 제의 진행은 전부 마치게 된다. 제장의 분위기를 살펴보면 마쳐야 할 것으로 생각되면 알자는 초헌관에게 제의를 모두 마치게 된다는 뜻으로 “예필”을 아뢰게 되는데, 이렇게되면 제관들은 제단을 물러나 나오게 된다. 그리고 나면 대축이하 집사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물러나 처음 제자리로 돌아와 서면 찬자의 흥과 배의 소리에 맞추어 4배를 올리고 나서 물러나게 된다. 그리고 나면 찬자와 집례는 처음과 같이 마지막으로 제자리로 와서 구령없이 4배를 올리고 제단을 물러나게되는데 이로써 이사제의 봉행은 전부 마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진행된 이사제의 제의를 살펴보면 처음 우리가 사는 일상의 공간이지만 촛불을 켜고 분향을 하여 신이 오실 수 있는 신성공간으로 제단을 만들면서 선물을 드려 극진하게 모시게 된다. 그리고 나서 헌관들이 나와 술을 대접하면서 신의 능력을 믿음과 동시에 제의를 통해 마을 사람들이 얻고자하는 기구사항을 들어주십시 하고 고하게 된다. 그리고 무한 능력의 이사신이 음향한 제주를 마을 대표가 나누어 마침으로써 복을 나누어 옴은 물론 신에게 드렸던 폐백과 축을 소망의 용광로에 넣어 불살라버리는 것으로써 미진함이 남아 있지 않음을 확인하는 과정인 것이다.

마) 철상(撤床)

철상은 진설의 반대 순으로 하는 편이나,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반드시 그 순서를 지키는 것은 아니다. 우선 제의 봉행을 마치면 그 자리에서 꼬감, 비자 등 과일을 큰 바구니에 담는다. 그리고 제숙을 구분하여 담고 나면 다음을 위해 제기를 별도로 담아 마을회관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나누어 들고 옮긴다. 마지막으로 집사들은 리어카를 이용해 회생을 옮기고 참례하였던 젊은 분들이나 마을회장 등이 천막 등을 철거하고 청년회원들이 임시로 가설하였던 전기등을 소등한다. 물론 추위를 달래기 위해 모닥불도 이 때 겨울철 모진 바람에도 다시 살아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끄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옮겨진 제물들 중 회생은 제관들에게 나누

어주기 위해 분육(分肉)을 하게 되고 결산을 하면서 먹을 수 있도록 국수도 삶게 되는 것이다. 이때부터 제청의 정지는 분주하게 되는 것이다.

4) 결산·음복

제의 봉행을 마치면 제청으로 돌아와 제복을 벗고 우선 집례(集禮)와 초헌관(初獻官)은 결산 준비를 한다. 제향비와 회사금을 합쳐 수입을 잡고 제물과 제청에서의 제관 식사비, 제관들 목욕비 등을 합쳐 지출에 포함시킨다. 그리고 회사품의 내역을 일일이 정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5. 결론

오랜 시간 진행되면서 마을민들에 의해 전승되어 왔을 이사제(里社祭)의 형식과 특징을 밝히고자 제주의 한 마을을 대상으로 조사에 임하였다. 조사지는 농경이 산업의 주를 이루었던 중산간 마을로 마을내에 식수와 용수로 활용할 '물통'이 15개, 공동의 도정(搗精) 기구였던 '물궤'가 11개나 있었던 마을이었다. 그러나 신제주가 인접한 지역에 개발되면서 급격한 변화를 겪은 지역으로 6차선의 대도로나 2개씩이나 마을의 일부를 지나가게 되었으며, 다세대 주택으로 공동주택도 들어선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마을내에는 아직도 그들의 조상들이 만들어 식수 확보를 위해 이용하였던 '새구렁'이라 부르는 큰 '물통'을 보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을민의 안녕을 담보받기 위해 해마다 마을 공동의 제의로 이사제(里社祭)를 계승해 오고 있는 전통의 마을이기도 하다.

전통문화의 참의미를 찾아 밝히고 보급 선양하기 위해 이루어진 본 연구는 마을제의 문화적 전통을 탐구하고자 현장에서 제의를 진행 과정을 기록하면서 마을민의 느낌을 살필 수 있는 연행조사법을 조사방법으로 채택하고, 제의 진행 현장을 가감없이 살피는 것을 우선하여 조사에 임하였다. 이 때문에 부정을 막고자 일정한 장소를 정해 입제 정성을 드리는 제

관들의 모습은 물론 마을민들의 모습도 살필 수 있었다. 물론 이 조사과정에서 많은 피조사들로부터 증언을 통해 제의 집행의 형식과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으며, 아울러 전승된 기록물을 통해 실제적인 증거들을 발견할 수도 있었다. 이들 통해 연미마을에서 전해 내려온 이사제의 전통과 연행 현장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세가지 특징을 들 수 있다.

첫째, '삿'의 설치, 제청에서의 정성, 참례 등이 간소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마을민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한 마을과 마을민을 대표하는 제관들의 부정 방비는 필수적인 것이다. 이를 위해 '삿'을 매고, 제청을 선정하고 최소한의 일정기간이지만 근신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그러나 부정 방비를 위해 설치하였던 마을 출입구 5곳에의 설치 '삿'을 찾아 볼 수 없었으며, 마을민을 대표하는 제관들이기는 하지만 그들의 생업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입제 근신의 정성도 상당히 희석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지역출신 도의원, 동장, 인근 마을회장, 농협간부 등을 제외하면 바쁜 마을민들의 사정 때문인지 제청을 찾아 참례하는 마을민의 수도 줄어들고 있음도 변해가는 세태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예차헌관과 도예차의 집사(執事)를 별도로 두고, 전사관을 여자로 선임한다는 점이다. 혹 있을지도 모르는 유고시를 대비해 예비 헌관과 예비 집사를 별도의 제관으로 임명하여 운영해 오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이는 다사한 일들로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람들의 일상이지만, 마을민을 대표해 선정된 제관들의 일상 때문에 예정된 제의 진행이 연기되어서는 안 됨을 절실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제관 개인이 당하는 예측하지 못한 불의의 일 때문에 마을민 전부를 위한 제의의 연기를 선택할 수 없었던 제의 진행의 절박함을 보여줌과 동시에 제관을 대체해서라도 치루고야 마는 마을민들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해, 제관선정의 여건을 보아 충분히 제관을 선정할 수 없을 때에는 예차 헌관과 도예차를 별도 임명하지 않는 경우도 기록을 통해 살필 수 있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이들을 임명하여 유고시를 대비하여 왔음을 통해 볼 때 제의봉행을 위한 마을민의 협심과 노력을 엿볼 수 있다. 그리

고 남자로 임명해 오던 전사관의 직분을 일정기간 임명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1999년부터 여자분으로 고정하여 진행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이는 제의 진행을 위한 입제 제청의 변화와 물종 준비를 담당하였던 체계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실이다. 당초 연미마을에서는 전사관택을 선정하여 입제하고 그 전사관 택에서 제의 봉행에 필요한 물종을 준비하는 체계였다. 그러나 산업화와 관광자원화로 생업수단이 변화하면서, 마을의 생업수단도 자급자족의 농경체계가 무너지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사관택을 지정해 물종을 준비하는 체계도 지속되기 어렵게 되면서 마을회관이 제청으로 선택되면서 물종의 준비체계도 달라지게 된 것이다. 청주를 닦아 제주를 마련하고, 식사를 제공하던 번거로움에서 벗어나 단순히 제의 봉행에 필요한 물종만 준비하면 되는 역할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몇해 동안의 과도기적 상태를 지나 전사관도 경험 많은 여자분의 필요라는 현실적 선택으로 바뀌게 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제향비의 마련을 위해 순수 마을민인 불턱을 운영하는 가장(家長)을 기준으로 일정액을 거출하는 체계였다. 그러다가 회사금품이 늘어나고 집행 잔액이 발생하면서 정해진 금리(金利)로 자금을 불러 원활한 제의봉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해 전사관을 전해에 선출하여 자금운영을 책임지어왔던 것이다.

넷째, 제의 봉행을 위한 물종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회생, 메, 우포, 우해, 어숙, 어해, 당유, 비자, 건시, 청저, 근저, 형염, 폐백, 축문, 지방, 황축, 모혈, 황축 등으로 구성되는 일체의 제물을 전래의 방법대로 철저하게 준비하여 제의 임하고 있다. 물론, 제관들의 제복(祭服), 제기(祭器) 일체도 마을회에서 완비하여 전래의 흘기(笏記)에 따라 운영함으로써 제의봉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그러나 시골의 다른 마을처럼 돈성(豚腥)을 전사관이 중심이 되어 준비하지 않고, 도축(屠畜)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서 공급받아 준비하고 있음은 다른 마을과 비교되는 특징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문화는 변화한다. 그 문화를 향유하는 시대가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지

는 것처럼 변화하기 마련이다. 자연의 일부로서 불확실한 공간에서 살아가야 하는 마을민들에게, 안녕을 담보받고자 치루어졌던 연미마을의 이사제(里社祭)의 전통도 이처럼 변해왔고, 앞으로도 변화를 겪으면서 이어져 갈 것으로 기대된다.

- 핵심어: 마을제, 제관, 제비, 제청, 음복, 결산

<참고문헌>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마을제당』, 국립민속박물관
 金東燮, 『兪山堂 본풀이 연구』, 제주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89
 김동섭, 『보목동 마을제 연구』, 『영주어문』(제11집), 영주어문학회, 2006
 김동섭, 『서귀포시 법환동 마을제 연구』, 『영주어문』(제7집), 영주어문학회, 2004
 김동섭외, 『제주의 민속과 자연』,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1995
 오라동향토지편찬위원회, 『오라동향토지』, 오라동주민자치위원회, 2003.
 오라국민학교, 『향토지(오라동)』, 은평초등학교, 1987
 李完鐘, 『濟州島 마을제에 대한 고찰』, 제주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95
 최승순, 『동제축문의 형식고』, 『한국민속학』(9), 민속학회, 1976
 玄容駿外,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濟州道編), 文化財管理局, 1974

<Abstract>

A Study of Yeon-mi village Ritual

Kim Dong-sup

The research which sees became accomplished is dawned a Jeju village ritual style and the feature which keep an old tradition should have been come. Investigation is a farming village where the cultivation forms, is located to middle among the mountains. To this place, the mill between folds 11 but 15 wells was a big village. With shin-jeju which is developed but newly is being contiguous and the change which is many standing is the place. 6 lane roads 2 or are made to pass by inside the village and, is a place where also the house of commonness enters, does. The village people will make their ancestors but not only will preserve the big well yet, to succeed the village ritual every year, is a village of the tradition which is come, does.

The research which sees leads and seeks is dawned the truth meaning of traditional culture. And comes out and meaning which is the genuineness informs widely. In order the [le] the line investigates a crown lascivious method first of all. And under investigating boil the preparation method of the swallow. And comes out and records a progress process from proposal site. Must investigate a village public opinion impression last about proposal. Respects this adopted the taking investigation law with investigation method.

This led and adding and subtracting investigated a proposal progress site without. And just boil an injustice observed the features of the crowns which live from recommending which chooses. Also the

impression of the village people who watches this investigated. From the informant companies the possibility of listening a many verbal evidence there was of course from process. Will be able to understand the style and meaning of ritual with this. The documentary will lead together and for 40 evidence will can discover. This investigation will lead and is to be the possibility which will reveal the tradition and a style of village ritual with 4 kind.

First, the establishment of the rope('sat') was simplified, the ritual in order to secure the peace of the village people to be carried out. So the village to defend unjustly about of course and my berry recommending. Respects this the village puts out the rope every is being in 5 places. Will see with this and the formal execution will be becoming contraction and there is a possibility which will know.

Second, type will select and prepares and designates the preliminary ritual man is a point with separate way. This goes through a ceremony certainly and will roll up is visible with expression of will.

Next, for the preparation of the swallow the thing of the village people will dance with became accomplished is a point with the company.

Finally, will respect ritual obeying orders and promises a thoroughness is a point in the bell preparation where will bite.

The culture changes. The culture under the fragrant the time changed. And also the person changes. To change like this. Also the village proposal tradition of this village comes, explanation undergoes is joined together and with the fact that will go is expected a change in future

- Key words: village ritual, a man of in ceremonial rites, expenses of ritual, a place in front of ritual, blessing. accounts